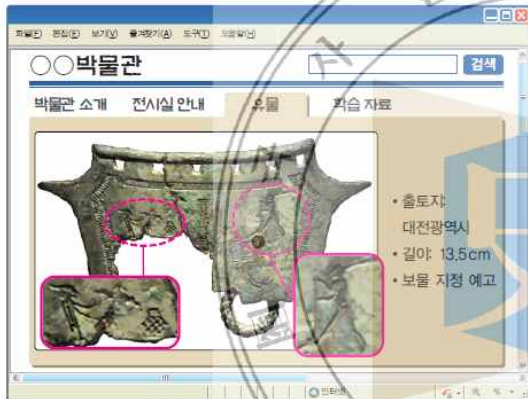


1. 다음 유물이 제작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계급이 없는 평등 사회였다.
- ② 토기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 ③ 잔석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④ 거푸집을 이용하여 무기를 제작하였다.
- ⑤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움집이 나타났다.

정답: ④

* 초기 철기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5세기경부터 철기 시대로 접어들었다. 특히,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업이 발달하여 경제 기반이 확대되었다. 철제 무기와 철제 연모를 씌에 따라 그 때까지 사용해 오던 청동기는 의식용 도구로 변화하였다.

대전 괴정동 출토 농경무늬 청동기는 초기 철기 시대에 제작된 제사에 쓰였던 기구로 추정된다. 제사 기구에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새긴 것으로 보아 이 시대에 농업이 매우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청동기 문화도 더욱 발달하여 한반도 안에서 독자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청동기 시대 후반 이후, 비파형 동검은 한국식 동검인 세형 동검으로, 거친무늬 거울은 잔무늬 거울로 그 형태가 변하여 갔다. 그리고 청동 제품을 제작하던 틀인 거푸집도 전국의 여러 유적에서 발견되고 있다.

① 구석기~신석기 시대는 생산력이 미약하여 잉여생산물이 없어 계급 없는 평등사회였다.

② 신석기 시대부터 토기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이지만 이보다 앞서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눌러찍기무늬 토기(압인문 토기) 등이 있었다.

③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인 중석기 시대의 석기들은 더욱 작게 만들어진 잔석기로서, 한 개 내지 여러 개의 석기를 나무나 뼈에 꽂아 쓰는 이음 도구를 만들었다. 이음 도구에는 톱, 활, 창, 작살 등이 있었다.

⑤ 신석기 시대에는 도구가 발달하고 농경이 시작되자 정착생활을 하며 주거 생활도 개선되어 갔다. 집터는 대개 움집 자리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움집의 중앙에는 불씨를 보관하거나 취사와 난방을 위한 화덕이 위치하였다. 햇빛을 많이 받는 남쪽으로 출입문을 내었으며, 화덕이나 출입문 옆에는 저장 구덩을 만들어 식량이나 도구를 저장하였다. 집터의 규모는 4, 5명 정도의 한 가족이 살기에 알맞은 크기였다.

2.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나라에서는 철이 생산되는데 한(韓)·예(濊)·왜인(倭人)들이 모두 와서 사간다. 시장에서의 매매는 철을 이용하는데, 마치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다. 또 두 군(郡)에도 공급하였다.

- 「삼국지」 -

- ①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 ② 읍군과 삼로라는 지배자가 있었다.
- ③ 1책 12법이라는 엄격한 법이 있었다.
- ④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을 생산하였다.
- ⑤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정답: ①

* 철이 많이 생산된 변한(->가야)

삼한 사회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농경 사회였다.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경이 발달하였고, 벼농사를 지었다. 특히,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다. 철은 교역에서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하였다.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에서는 철기 문화를 토대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었고 점진적인 사회 통합을 거쳐 2세기 이후 여러 정치 집단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3세기경에는 이들 사이의 통합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김해의 금관가야가 중심이 되어 연맹 왕국으로 발전하였다.

② 함경도 및 강원도 북부의 동해안에 위치한 옥저와 동예는 변방에 치우쳐 있어 선진 문화의 수용이 늦었으며, 일찍부터 고구려의 압력을 받아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각 읍락에는 읍군이나 삼로라는 군장이 있어서 자기 부족을 다스렸으나, 이들은 큰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③ 부여와 고구려의 법으로는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는 1책 12법이 있었다.

④, ⑤ 동예는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농경, 어로 등 경제 생활이 윤택하였다. 특히, 명주와 삼베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특산물로는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동예에서는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3.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왕(王)이라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 하였다. (가)의 후(侯) 역시 스스로 왕을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공격하려 하였다. 대부 '예'가 간하므로 중지하고 '예'를 파견하여 연나라를 설득하니, 연나라도 침공하지 않았다.

- 「위략」 -

- ①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 ② 5부가 연합한 연맹 왕국이었다.
- ③ 지방 통치를 위해 담로를 두었다.
- ④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다.
- ⑤ 부왕, 준왕 등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다.

정답: ⑤

* 고조선

고조선은 bc 4세기 경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로 들어가고 연맹국가 단계를 넘어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게 되었다. 영토도 한반도 북부와 요서·요동을 아우르는 큰 나라로 성장하였다.

춘추 시대 당시 중국은 종주국인 주나라가 쇠퇴하고 각 지의 제후들이 왕을 칭하고 있었는데 연나라가 기원전 323년에 왕을 칭하자 고조선의 군주도 '왕'이라 칭했다고 한다. 기원전 3세기경에는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그 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도 두었다. 또, 요서 지방을 경계로 하여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

기원전 4세기 말에서 3세기 초, 연나라가 세력을 확대하면서 고조선은 연나라의 공격을 받아 광대한 영토를 상실하고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연나라의 장수 진개(秦開)의 침입으로 고조선은 2,000여 리의 땅을 빼앗겼으며, 만번한(滿番汗)을 경계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기원전 283년 경).

이로 인해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녕 지방에서 대동강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① 동예는 폐쇄성이 강하여 족외혼(族外婚)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②, ④ 고구려는 5부족(계루·소노·절노·순노·관노) 연맹을 토대로 발전하였으며, 왕 아래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으며, 각기 사자, 조의, 선인 등 관리를 거느렸다.

③ 백제는 지방의 요지에는 한때(무령왕) 22개의 담로를 두고 왕족을 보내 다스렸다.

4. 다음 자료의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세상에 전하기를, “중국 황제가 고구려를 공격할 적에 눈에 화살을 맞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통감(通鑑) 등 중국 사서에 모두 실려 있지 않다. …… 나는 생각하기를, 당시에 비록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사관(史官)이 중국을 위해 숨겼을 것이니,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 「필원잡기」 —

○ 양만춘이 중국 황제의 눈을 쏘아 맞히매, …… 그가 떠나면서 양만춘에게 비단 백 필을 하사하고, 성을 굳게 지킴을 칭찬하였다.

— 「열하일기」 —

- ① 전연이 국내성을 침입하였다.
- ② 한 무제가 왕검성을 침략하였다.
- ③ 수 양제가 요동성을 침공하였다.
- ④ 당 태종이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 ⑤ 나·당 연합군이 평양성을 공략하였다.

정답: ④

* 고구려와 당의 전쟁(645)

수가 망한(612) 뒤에 중국을 통일한 당은 건국 초기에는 고구려와 화친을 꾀하였으나 당 태종이 즉위한 뒤부터는 두 나라의 관계가 점차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나라의 기틀이 잡히자, 당 태종은 세계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주위의 여러 나라를 침략하는 한편, 고구려에도 압력을 가해 왔다. 이에 고구려는 랴오허 강 주위의 국경선에 천리장성을 쌓고 당의 공격에 대비하였다(631~647). 이 때,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을 비롯한 여러 대신을 제거하였다(642).

이어 연개소문은 왕의 조카를 보장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대막리지(大莫離支)가 되어 모든 권력을 장악하였다. 연개소문은 강경한 대외 정책을 써서 신라와 당에 맞섰다. 백제와 힘을 합쳐 신라에 대한 공격을 한층 더 강화하였으며, 신라에 대한 공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당의 간섭을 단호히 물리쳤다.

이에 당은 연개소문의 정변을 구실삼아 고구려에 쳐들어왔다. 당 태종은 육군과 수군으로 양쪽에서 공격해 왔다. 먼저, 랴오허 강을 건너 요충지인 요동성, 백암성 등을 차례로 함락한 후,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안시성은 조그마한 산성이었지만 서쪽 변경의 중요한 요새였다. 안시성은 당군에 완전히 포위되어 하루에도 6, 7회의 공격을 받았으며, 마지막 3일 동안 총공격을 받았으나 함락되지 않았다. 안시성에서는 성주를 비롯한 모두가 굳세게 저항하여 끝내 당군을 물리치고 성을 지킬 수 있었다(645). 이 때 당 태종은 양만춘이 쏜 화살에 눈을 맞았다는 일화도 있다.

① 고구려는 고국원왕(331~371) 때에 서북쪽 선비족 국가인 전연(342)의 침략을 받아 국내성이 함락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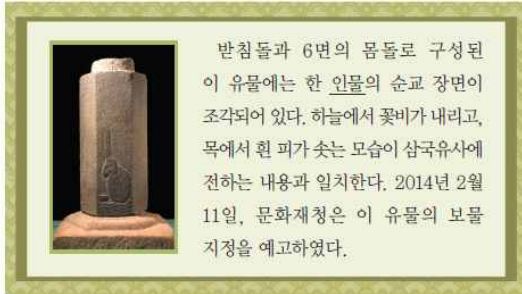
② 고조선이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동방의 예나 남방의 진이 직접 중국의 한과 교역하는 것을 막고, 중계 무역의 이득을 독점하며 한과 대립하자, 한의 무제는 수륙 양면으로 대규모 침략을 감행하였다. 우거왕의 고조선은 약 1년에 걸쳐 한의 군대에 맞서 완강하게 대항하였으나 장기간의 전쟁으로 지배층의 내분이 일어나 왕검성이 함락되어 멸망하였다(기원전 108).

③ 612년에 수 양제는 직접 113만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요동성을 포위, 공격하는 데 실패하였고, 30만 별동대는 을지문덕의 계략에 의하여 살수에서 대패하였다.

⑤ 고구려는 수·당과의 거듭된 전쟁으로 국력의 소모가 심하였고, 연개소문이 죽은(665) 후에 지배층의 권력 쟁탈전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결국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평양성이 함락되며 멸망하였다(668).

5. 밑줄 그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 ② 일본에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다.
- ③ 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노력하였다.
- ④ 부석사를 건립하고 화엄 사상을 전파하였다.
- ⑤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답: ⑤

* 신라 이차돈의 순교와 불교 공인

삼국은 공통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집단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교를 받아들였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372), 백제는 침류왕 때에 각각 중국 전진과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눌지왕(417~458) 때에 불교가 들어왔으나 부족적 전통과 이에 기반한 신앙을 가진 귀족들의 반발이 심하여 불교 공인이 여의치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흥왕 때에 이차돈(?~527)이 자진 순교를 하여(목에 흰피가 났다고 함) 불교를 공인케 되었다고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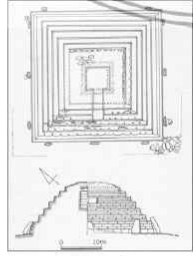
① 통일신라기에는 승려가 중국에 가서 새로운 불교를 전수해 왔다. 중국을 넘어 인도까지 가서 불교를 공부하고 오는 승려도 있었다. 그 중에 혜초(704~787)는 자신이 돌아본 인도와 중앙 아시아 여러 나라의 풍물을 생생하게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② 6세기 백제 성왕 때에는 노리사치계를 일본에 보내어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다(552).

③ 원효(617~686)는 극락에 가고자 하는 아미타 신앙을 자신이 직접 전도하며 불교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그는 속인의 옷을 입고 자신을 소성거사라 하며 속인 행세를 하고 다녔는데, 광대들이 큰 박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무애가를 지어 부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나무아미타불만 외쳐도 서방정토에 갈 수 있다: 정토 신앙) 일반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④ 의상(625~702)은 당에 유학하여 지엄의 문하에서 수업하고 귀국하여 신라의 화엄종을 창설하였다. 의상은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여 불교 문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또한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이끌었다.

6.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실측도〉

- ① 중국 남조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 ② 나무로 꺾을 짜고 그 위에 돌을 쌓았다.
- ③ 널방의 벽과 천장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
- ④ 도굴이 어려운 구조로 많은 껴묻거리가 출토되었다.
- ⑤ 서울 석촌동에 있는 백제의 돌무지무덤과 양식이 유사하다.

정답: ⑤

* 계단식 돌무지 무덤 장군총

고구려는 초기에 주로 돌무지무덤을 만들었으나, 점차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뀌어 갔다. 돌을 정밀하게 쌓아올린 돌무지무덤은 만주의 집안(지안) 일대에 1만 2000여 기가 무리를 이루고 있다. 다듬은 돌을 계단식으로 7층까지 쌓아올린 장군총이 대표적이다.

장군총은 제 1층의 각 면의 적석(積石)이 밖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높이 약 5m 가량의 거대한 호석(護石)을 각 면에 3개씩 기대어 세웠고, 묘역 밖 뒤 좌측에 배총(탈린 무덤)이 있다.

굴식 돌방무덤은 돌로 널방을 짜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 봉분을 만든 것이다. 널방의 벽과 천장에는 벽화를 그리기도 하였다. 이런 무덤은 만주 집안, 평안도 용강, 황해도 안악 등지에 널리 있다.

백제는 한강 유역에 있던 초기 한성 시기에 계단식 돌무지무덤을 만들었는데, 서울 석촌동에 일부가 남아 있다. 이는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라는 건국 이야기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용진 시기의 고분은 굴식 돌방무덤 또는 널방을 벽돌로 쌓은 벽돌무덤으로 바뀌었다. 벽돌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무령왕릉이 유명하다.

사비 시기에는 규모는 작지만 세련된 굴식 돌방무덤을 만들었다. 백제 돌방무덤과 벽돌무덤에도 벽과 천장에 사신도와 같은 그림을 그려 넣기도 하였다.

신라는 거대한 돌무지덧널무덤을 많이 만들었으며, 삼국 통일 직전에는 굴식 돌방무덤도 만들었다.

신라 경주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돌무지 덧널 무덤은 주로 5세기 전후로 왕권이 강화되는 마립간 시대에 만들어진 무덤으로 지상이나 지하에 시신과 껴묻거리를 넣은 나무덧널(木槨)을 설치하고 그 위에 널돌을 쌓은 다음에 흙으로 덮었다. 도굴이 어려워 많은 껴묻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

7. 밑줄 그은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신문

제△△호 2009년 ○○월 ○○일

중국 지린 성에서 발해 황후 무덤 발굴



지린 성 허룽 시 룽터우 산 고분군에서 발해국 3대 문왕(재위 737~793) 부인과 9대 간왕(재위 817~818) 부인 묘지(墓誌)가 출토 되었다. 그런데 간왕 부인 묘지에 '발해국 순목 황후'라는 표현이 있어 주목된다. 이는 ㉠발해가 황제국임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중국은 현재 이 자료의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 기>

- ㄱ. 등주에 발해관이 설치되었다.
 ㄴ. 인안, 대흥 등의 연호가 사용되었다.
 ㄷ. 정혜 공주 묘비에 황상이라는 표현이 있다.
 ㄹ. 발해에서 신라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있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황제국을 표방한 발해

발해는 전체 15명의 왕 중에서 무려 10명의 왕이 연호를 사용하였다. 천통(고왕), 인안(무왕), 대흥·보력(문왕)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문왕의 넷째 딸 정효공주의 묘비에 "황상은 조회를 파하고 크게 슬퍼하여(皇上罷朝興慟)"라는 글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발해에서는 문왕을 중국의 황제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 발해는 당과 해로와 육로를 이용하여 무역을 하였는데, 당은 산둥 반도의 덩저우에 발해관을 설치하고 발해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였다. 이는 황제국 표방과는 관계가 없다.

㉡ 발해 문왕(737~793) 때에는 당과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 체제를 정비하고, 신라와도 상설 교통로(신라도)를 개설하여 대립 관계를 해소하려 하였다. 신라도도 황제국 표방과는 관계가 없다.

8.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9. (가), (나)의 부흥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 기>

- ㄱ. (가) - 검모잠이 고구려를 다시 세우고자 하였다.
 ㄴ. (가) -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ㄷ. (나) - 흑치상지가 백제 부흥 운동을 이끌었다.
 ㄹ. (나) -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국왕으로 임명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고구려와 백제 부흥운동

백제 멸망(660) 이후 각 지방의 저항 세력은 백제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복신과 흑치상지, 도침 등은 왕자 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주류성과 임존성을 거점으로 군사를 일으켰다. 이들은 200여 성을 회복하고 사비성과 웅진성의 당군을 공격하면서 4년간 저항하였으나,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부흥 운동은 좌절되었다. 이 때, 왜의 수군이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백강 입구까지 왔으나 패하여 쫓겨갔다(663).

고구려 멸망(668) 이후 보장왕의 서자 안승을 받든 검모잠과 고연무 등은 고구려의 유민을 모아 한성(황해도 재령)과 오골성을 근

거지로 부흥 운동을 전개 하였다. 이들은 한 때 평양성을 탈환하기도 하고, 후에는 신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세를 떨치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백제(660)와 고구려(668)가 멸망한 후, 당은 대동강 이남의 땅을 신라에게 준다는 약속을 어기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심을 드러냈다.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신라에도 계림도독부를 설치하여 지배하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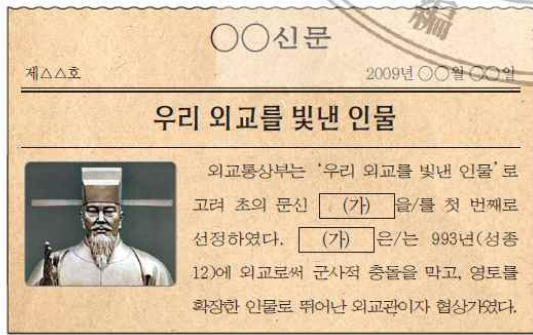
이에 신라는 당군을 몰아 내기 위한 전쟁에 나섰다. 먼저, 신라는 백제의 옛 땅을 찾기 위해 고구려의 부흥 운동을 지원하였다. 고구려 유민들을 이용하여 당 침략군을 몰아 내려고 한 것이다. 신라는 고구려의 왕족 안승으로 하여금 금마제(674~683, 전북 익산)에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라군은 당군이 주둔하고 있던 사비성을 함락하여 웅진도독부를 없애고, 백제의 옛 땅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과 연합하여 당과 정면으로 대결하였다. 신라는 고구려 부흥 운동 세력을 후원하는 한편, 백제 땅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그 후, 당군은 말갈군과 거란군을 앞세워 계속 침범하였으나, 신라는 장기간의 끈질긴 항쟁으로 이들을 물리쳤다. 신라군은 당의 20만 대군을 매소성에서 크게 물리쳐 군마 3만 마리와 많은 무기를 빼앗았으며(675), 당의 수군을 금강 하류 기벌포에서 격파하였다. 이렇게 당 침략군을 계속 물리친 신라는 드디어 대동강 이남 땅에서 당군을 완전히 몰아냄으로써 통일을 이룩하였다(676).

10.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동녕부를 회복하였다.
- ② 4군 6진을 개척하였다.
- ③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 ④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
- ⑤ 쌍성총관부를 수복하였다.

정답: ③

* 서희와 강동 6주

거란의 소손녕이 1차로 침입했을 때(993), 고려 조정에서는 서경이북의 땅을 거란에 주고 화평을 맺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거란의 침략 의도가 고려와 송과의 관계를 끊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서희는 거란의 장수 소손녕과 담판을 벌였다. 서희는 고려의 국호를 통해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강조하고,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끊는 대신, 거란으로 가는 길목인 압록강 동쪽 280리 지역을 돌려받기로 하고 화약을 맺었다.

고려는 이 지역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6성을 쌓아 고려의 영토로 편입하였다(994, 강동 6주). 이로써 고려는 영토를 압록강 하류까지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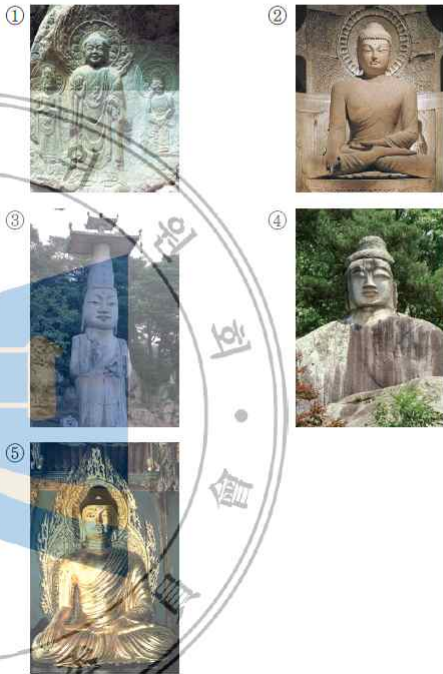
①, ⑤ 원의 간섭기(1270~1351)에 철령 이북에 쌍성총관부, 자비령 이북에 동녕부, 제주도에 탐라총관부라는 원의 통치 기구가 설립되어 넓은 영토를 빼앗기기도 하였다. 동녕부는 곧 반환되었으나(1290), 쌍성총관부는 그렇지 못하여 공민왕 때에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1356).

② 조선 세종 때에는 여진족을 토벌하고 북서 4군(1433, 최윤덕)과 동북 6진(1434, 김종서)을 설치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④ 12세기 초 부족의 통일을 이룬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까지 남하하면서 고려군과 자주 충돌하였다. 고려는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별무반이라는 특수 부대를 편성한 다음(1104),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동북 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1107).

11. 다음 기행문의 소재가 되는 불상으로 옳은 것은? [1점]

오랜만에 경주를 찾아 토함산에 올랐다. 동해 바다의 푸르른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하였다. 청초한 공기를 마시며 산길을 따라 걷다 교유섭 선생의 글귀가 새겨진 비석을 만났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잊어서는 안 될 작품으로 경주의 불상을 갖고 있다. 영국인은 인도를 잃을지언정 셰익스피어를 버리지 못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귀중한 보물은 바로 이 불상이다.”
나는 지금 이 불상을 만나러 간다. 가슴이 뛰다.



정답: ②

* 석굴암 본존불

통일 신라기 조각의 최고 경지를 보여 주는 것은 경주 석굴암의 본존불(국보 24호)과 보살상들이다.

경주 토함산 중턱에 위치한 석굴암은 정사각형과 대각선, 정삼각형과 수선, 원형과 균등분할 등 기하학 기법을 응용하여 조화의미를 창조하였다.

천장이 둥근 돔 형식인 석굴암 주실의 중앙에 있는 본존불은 균형잡힌 모습과 사실적인 조각으로 살아 움직이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본존불 주위의 보살상을 비롯한 부조들도 매우 사실적이다. 입구 쪽의 소박한 자연스러움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점점 정제되어, 불교의 이상 세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① 서산 용현리 마애삼존불(국보 84호): 중앙에 여래 입상의 거구를 양각하고 여래의 오른쪽에 보살 입상을, 왼쪽에 반가사유형 보살좌상을 배치하였다. 온화한 미소가 매우 특징적이며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운다.

② 석굴암 본존불

③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보물 218호): 968년(광종 19)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 시대 최대의 석불입상. 지역 특색이 잘 드러난 것이 특색이다.

④ 안동 이천동 석불(마애여래 입상, 보물 115호): 암벽에 불상의 몸을 선으로 새기고 머리는 따로 올려놓은 거구의 불상. 이러한 형식의 불상은 고려 시대에 많이 만들어졌는데,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 입상도 같은 형식을 보인다.

⑤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국보 45호): 고려 초기 추정.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소조 불상 가운데서 가장 크고 오래된 것으로 그 가치가 높다. 신라시대의 불상의 특징인 온화함 대신 위엄이 넘치며 긴장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고려시대의 불상으로서의 상당히 정교한 솜씨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12. 밑줄 그은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3점]

왕이 원의 제도를 따라 변발(辮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입고 전상(殿上)에 앉아 있었다. 이연종이 말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선왕(先王)의 제도가 아니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며 즉시 변발을 풀어 버렸다.

- ① 주자감을 세웠다.
- ② 만권당을 설치하였다.
- ③ 소격서를 폐지하였다.
- ④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 ⑤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정답: ⑤

* 반원자주정책을 펼친 공민왕의 업적

공민왕(1351~1374)은 원·명 교체기를 이용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공민왕 때의 개혁은 대외적으로 반원 자주를 실현하고, 대내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은 기철로 대표되던 친원 세력을 숙청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였다(1356). 이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원의 간섭으로 바뀐 관제를 복구하였으며, 이연종의 건의를 받아들여 변발, 호복의 몽골 풍속을 금지하였다(1352). 또, 무력으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으며(1356), 더 나아가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하여 지용수와 이성계를 시켜 요동 지방을 공략하였다(1370).

이러한 공민왕의 반원 자주정책은 친원파 권세가들의 반발로 중단될 위기에 놓였으나 공민왕은 대내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권문세족을 억누르면서 꾸준히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공민왕은 왕권을 제약하고 신진 사대부의 등장을 억제하고 있던 정방을 폐지하였다(1352). 또한 국자감을 계승한 성균관을 순수한 유교 교육 기관으로 개편 하고(1362) 유교 교육을 강화하여 이색, 정몽주, 정도전 등의 신진사대부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 아울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1366),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이를 통하여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공민왕 때의 개혁은 권문세족의 강력한 반발로 신돈이 제거되고(1371), 개혁 추진의 핵심인 공민왕까지 시해되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① 발해는 유학 교육을 목적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여 귀족 자제에게 유교 경전을 가르쳤는데, 당의 국자감 관제를 거의 본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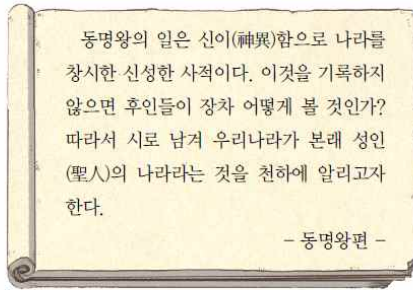
② 고려 말 충선왕은 원의 연경에 만권당(1314)을 세우고 이제현 등의 성리학자들을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게 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

③ 조선 중종 때에 조광조 등 사람들의 건의로 도교 행사인 초제를 주관하는 소격서가 일시 폐지되었으나(1518), 기묘사화 이후 복설되었다(1522). 임진왜란 이후에는 완전 폐지되었다.

④ 통일신라 하대 원성왕(785~798) 때에는 국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 삼품과를 마련하였다(788).

13.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 ②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되었다.
- ③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 ④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 설화가 기록되었다.
- ⑤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계보가 수록되었다.

정답: ②

* 이규보의 '동명왕편'

고려 후기에는 민족적 자주 의식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 하려는 경향이 대두하였다. 이는 무신정변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몽골 침략의 위기를 겪은 후에 나타난 변화였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역사인 이규보의 동명왕편(1193)은 고구려 건국의 영웅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 서사시로서, 고구려의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고려 후기 무신정권기의 학자인 이규보는 동명왕편(동국이상국집에 수록)에서 민간에서 귀신 이야기로 흘러내려온 고구려 동명왕의 건국설화를 재평가하여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나타난 유교적인 합리주의 사관을 비판하고 고대사의 소박한 원형을 그대로 표출하였다.

①, ③ 고려 중기 인종 때에 김부식 등이 왕명을 받아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1145).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 나라 최고(最古)의 정사(正史) 역사서로서, 고려 초에 쓰여진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고구려 계승 의식을 뚜렷하게 표방하였으나, 중기에 이르러 신라 계승 의식이 강화되었는데, 삼국사기에는 신라 계승 의식이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④ 충렬왕 때에 일연이 쓴 삼국유사(1281)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⑤ 신라 말 6두품 출신 유학자 최치원이 저술한 '제왕연대력'은 중국과 우리나라(신라)의 제왕(帝王)의 계보와 연표가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나 현존하지 않고 있다.

14. 밑줄 그은 '이 탑'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탑의 복원은 국내 문화재 보존·복원 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탑의 복원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도	내용
1348년	경기 개성 부소산 사찰에 건립
1907년	일본 궁내 대신이 해체하여 일본으로 밀반출
1907~1908년	베델 등이 국내외 언론에 석탑 약탈 기사 보도 후 반환 운동 전개
1918년	반환되어 경복궁 회당에 보관
1959년	경복궁 내 전통 공예관 앞에 복원
2005년	국립 중앙 박물관으로 이전 후 실내 전시



정답: ⑤

* 경천사지 10층 석탑

우리나라 최초의 대리석탑인 고려 후기의 경천사 10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본뜬 것으로, 조선 시대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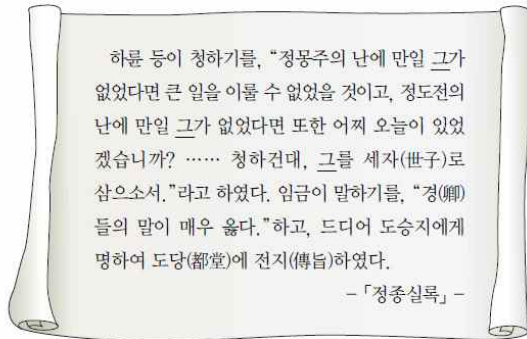
3단으로 된 기단은 위에서 보면 아(亞)자 모양이고, 그 위로 올려진 10층의 높은 탑신 역시 3층까지는 기단과 같은 아(亞)자 모양이었다가, 4층에 이르러 정사각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다. 탑의 1층 몸돌에 1348년(충목왕 4년)에 세웠다는 기록이 있어 만들어진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기단과 탑신의 각부에는 십이지상의 불상·보살·천부·나한·비구형의 각종 군상이 장려하게 조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륜부·옥개·기둥·두공 등 목조건물의 세부를 변화있게 조각으로 전개시키고 있다. 여기 부조는 원의 표현 형식이 혼입되어 있음을 보이는데 원공장(元工匠)이 직접 가담하여 만든 전형적인 기준작으로서 중요하다

일제 시대에 일본으로 무단 반출되었던 것을 되돌려 받아, 1960년 경복궁에 복원하여 세웠다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 놓았다.

- 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
- ② 경주 불국사 다보탑 (통일신라)
- ③ 길림 장백현 영광탑 (발해)
- ④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 (고려)

15. 밑줄 그은 '그'가 왕이 되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사병을 혁파하였다.
- ② 칠정산을 간행하였다.
- ③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 ④ 집현전을 폐지하였다.
- ⑤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정답: ①

* 조선 태종의 정책

조선 태조 이성계의 5째 아들로서 정몽주를 제거하여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웠으며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1398, 1400)을 통하여 정도전 등 개국 공신 세력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태종(1400~1418) 이방원은 왕권을 강화하고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태종은 6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안을 국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제도인 6조 직계제를 채택하였으며, 언론 기관인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들을 견제하였다. 또, 양전 사업과 호구 파악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호패법을 실시하였고, 사원의 토지를 몰수하고, 억울한 노비를 조사하여 해방시켰다. 아울러 사병을 없애 왕이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면서 친위 군사를 늘렸다.

② 조선 태종의 3째 아들로 왕위에 오른 세종(1418~1450) 때에 정흠지, 정초, 정인지 등에 의해 편찬된 역법서 '칠정산(1442)'은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칠정산 외편)로 하여 만든 역법서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다(칠정산 내편).

③, ⑤ 조선 세조의 장자인 의경세자(후일 덕종으로 추존)의 2째 아들로 왕위에 오른 성종(1469~1494)은 홍문관을 두어 관원 모두에게 경연관을 겸하게 함으로써 집현전을 계승하였으며, 정승을 비롯한 주요 관리도 다수 경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건국 이후의 문물 제도의 정비를 완비하였으며, 경국대전의 편찬을 마무리(1484)하여 반포함(1485)으로써 이후 조선 사회의 기본 통치 방향과 이념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조선 왕조의 통치 체제가 확립되었다.

④ 조선 세종의 2째 아들인 수양 대군은 정변(계유정난, 1453)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후 단종의 양위를 받아 왕위에 올랐으며(1455), 단종 복위를 꾀하던 집현전 출신 학자들을 처형한 뒤에는 집현전을 폐지하고(1456), 단종도 죽이고 말았다(1457).

16. (가)에 들어갈 세시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동지(冬至) 뒤 1백 5일이 (가)이/가 되는데, 하루 전날을 취숙일(炊熟日)이라고 한다. …… (가)에 이르러서는 밤낮으로 불과 연기를 금하되, 서울에서는 금화도감 낭청(禁火都監郎廳)이 관원을 거느리고 마을을 순찰하며, 지방에서는 고을 수령들이 동리의 정장(正長)으로 하여금 순찰하게 하였다.

- 「세종실록」 -

- ① 부럼을 깨고 오곡밥을 지어 먹었다.
- ② 팔죽을 쑤어 부엌과 대문짝 기둥에 뿌렸다.
- ③ 찬 음식을 먹고 조상의 묘를 찾아 돌보았다.
- ④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뛰기를 하였다.
- ⑤ 귀밝이술이라 하여 데우지 않은 술을 나누어 마셨다.

정답: ③

* 세시풍속 한식(寒食)

동지(冬至)에서 105일째 되는 날. 양력으로 4월 5, 6일 경이다. 춘추시대 진문공과 불에 타 죽은 개자추의 고사에서 유래와 관련 있어 찬 음식을 먹으며 이 날에 보통 성묘(省墓)를 한다.

①, ⑤ 정월 대보름(음력 1.15): 일명 상원(上元)으로 불리운다. 한해의 풍농(豐農)을 기원하는 의미로 쌀, 조, 수수, 팥, 콩 등을 섞어 지은 오곡밥을 먹고, 건강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땅콩이나 잣, 호두, 밤 등 부럼을 자기 나이 수대로 깨물며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원하고, 일년 내내 기쁜 소식만 전해달라며 부녀자 애들 할 것 없이 귀밝이술(耳明酒)을 마신다.

② 동지(冬至): 24절기 가운데 하나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서 대설과소한 사이이다. 양력 12월 22일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설'이라 해서 크게 축하하는 풍속이 있었다. 궁중에서는 이 날을 원단(설날)과 함께 으뜸되는 축일로 여겨 군신과 왕세자가 모여 '회례연'을 베풀었으며, 해마다 중국에 예물을 갖추어 '동지사'를 파견하였다. 또 지방에 있는 관원들은 국왕에게 글을 올려 축하하였다. 민가에서는 붉은 팥죽을 쑤어 먹었다.

④ 단오(端午): 음력 5월 5일. 삼한 시대의 수릿날에 기원하여 한해 농사의 풍성을 기원한다 단오의 풍속 및 행사로는 창포물에 머리감기, 쑥과 익모초 뜯기,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단오장이라 하여 창포 뿌리를 잘라 비녀 삼아 머리에 꽂는 등의 풍속과 함께 그네뛰기, 활쏘기, 씨름 같은 민속놀이 등이 행해졌다.

17.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덕용이 자백하기를 “평소 대윤(大尹)·소윤(小尹)에 위말리지 않으려고 조심하였는데, 그들과 함께 모반을 꾸민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계속 추궁하자 그는 “윤임이 제게 이르되 경원 대군이 왕위에 올라 윤원로가 권력을 잡게 되면 자신의 집안은 멸족될 것이니 봉성군을 옹립하자고 하였습니다.”라고 실토하였다.

- ① 김일손의 사초가 발단이였다.
- ② 위훈 삭제에 반발하여 발생하였다.
- ③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일어났다.
- ④ 폐비 윤씨 사건이 갈등의 원인이었다.
- ⑤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③

* 을사 사화(1545)

조선 중기에 훈구와 사림과의 갈등으로 4차례의 큰 사화(士禍)가 있었다.

무오사화(1498): 김종직의 ‘조의제문’ 사초를 제자인 김일손이 실록에 작성한 것을 유자광, 이극돈의 훈구세력이 문제 삼아 김종직(부관참시), 김일손 등의 사림파를 처형한 사건. 그 결과 향사례, 향음주례를 주관하던 사림들의 기구가 혁파되었고, 김종직 문인으로 구성된 영남사림이 대부분이 몰락하였다.

갑자사화(1504): 연산군의 모친인 폐비 윤씨 사건을 둘러싸고 궁중파(임사홍, 신수근)가 성종의 유지를 주장해 폐비복위를 반대한 잔존 사림(윤필상, 김굉필, 정여창)과 훈구파 중 부중파(한명회, 정창손) 등을 처형한 사건

기묘사화(1519): 중종 때에 진출한 조광조의 급진개혁(훈구파 위훈삭제, 현량과 실시 등)과 관련하여, 남곤, 심정 등의 훈구 세력이 ‘주초위왕’ 모략으로 조광조, 김정 등의 사림이 처형된 사건. 사림에 의해 추진된 소학 실천운동이 향약과 함께 한 때 폐지되었다.

을사사화(1545): 명종 때에 왕위 계승을 놓고 외척인 소윤(윤원형)과 대윤(윤임)간의 권력 싸움과, 양편 모두에 사림이 가담하여 큰 피해를 받은 사건. 윤임과 정희등, 박광우 등의 사림이 처형당하였다. 이후 낙향한 사림은 학문교육에 몰두하여 서원과 성리학의 발달하였다.

⑤ 1567년 선조가 즉위하면서 그 동안 향촌에서 세력 기반을 다져 오던 사림 세력이 대거 중앙 정계로 진출하여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림 세력은 척신 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게 되었다.

명종 때 이후 정권에 참여해 온 기성 사림(심의겸 중심)은 척신 정치의 과감한 개혁에 소극적이었다. 반면에, 명종 때의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새롭게 정계에 등장한 신진 사림(김효원 중심)은 원칙에 더욱 철저하여 사림 정치의 실현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특히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김효원과 심충겸)와 공론을 둘러싸고 두 세력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기성 사림을 중심으로 서인이 형성되고, 신진 사림을 중심으로 동인이 형성되었다(1575).

18.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옳은 것은?

[1점]

이 그림은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조화롭게 구현한 걸작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안평 대군의 발문(跋文)과 시문 이외에 당시 문인들의 찬시가 실려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원본은 일본 덴리 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정답: ⑤

* 몽유도원도

화원 출신인 안견은 역대 화가들의 기법을 체득하여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 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몽유도원도(1447년)는 안평 대군이 꿈 속에서 본 도원(桃園)을 그리게 한 그림이다. 자연스러운 현실 세계와 환상적인 이상 세계를 능숙하게 처리하고 대각선적인 운동감을 활용하여 구현한 걸작이다. 현재 일본 덴리 대학에 소장하고 있다.

① 인왕제색도: 진경 산수화를 개척한 화가는 18세기에 활약한 정선이였다. 그는 서울 근교와 강원도의 명승지를 두루 답사하여 그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려 냈다. 정선은 대표작인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에서 바위산은 선으로 묘사하고, 흙산은 묵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산수화의 새로운 경지를 이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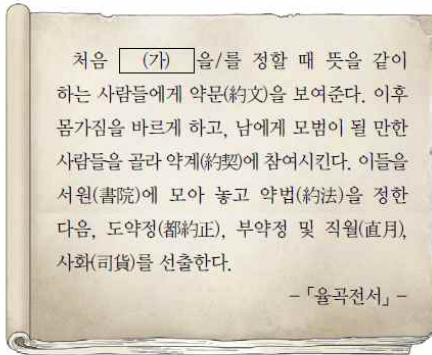
② 영통동구도: 18세기를 화려하게 장식한 강세황은 서양화 기법을 반영하여 사물을 실감 나게 표현하였다.

③ 매화초옥도: 조선 후기의 문인화가 고람전기(1825~1854)가 은둔처사의 대명사인 임포의 고사를 주제로 하여 매화꽃 핀 산 속과 그곳에 자리한 집을 그린 그림.

④ 옥순봉: 18세기 후반 풍속화로 유명한 김홍도는 본래 진경산수화로 시작하였다. 옥순봉은 충북 단양의 8경 중 하나로 죽순이 솟아 오른 듯한 바위의 모습을 잘 표현하였다.

19.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흥선 대원군에 의해 철폐되었다.
- ② 지방 사족이 주로 직임을 맡았다.
- ③ 향촌 사림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 ④ 4대 덕목을 바탕으로 규약을 제정하였다.
- ⑤ 주민 통제와 교화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정답: ①

* 향약

지방 사족은 향촌 사회를 그들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향약 조직을 만들었다. 향약은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한 이후(여씨 향약, 기묘사화 때 일시 폐지), 이황(예안 향약)과 이이(서원 향약, 해주 향약)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본래 향촌에서는 마을 단위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는 풍습이 있었다. 향약은 이러한 전통적 공동 조직과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유교 윤리를 가미하여 교화 및 질서 유지에 알맞게 구성한 것이다.

보통 '착한 일을 서로 권한다'(德業相勸), '잘못된 것을 서로 규제한다(過失相規)', '서로 예절을 지킨다(禮俗相交)', '어려운 일을 서로 돕는다(患難相恤)'의 4대 덕목이 공통적이었다.

향약은 향촌의 양반에서 노비까지 포함하여 규율하고, 향약 운영의 간부(직임: 약정, 직월)는 향안에 오른 사람 중에서 임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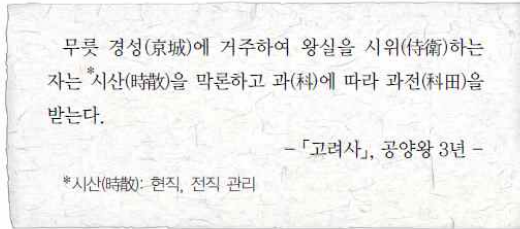
향약은 조선 사회의 풍속 교화에 많은 역할을 하였고, 향촌 사회의 질서 유지와 함께 치안까지 담당하는 등 향촌의 자치 기능을 맡았다(주민 통제). 향약의 보급으로 지방 사림을 결집시키며 지위는 강화되었으나, 지방 유력자가 주민을 위협, 수탈하는 배경을 제공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① 서원은 이름난 선비나 공신을 숭배하고 그 덕행을 추모하였고, 유생이 한 자리에 모여 학문을 닦고 연구함으로써 성리학 연구를 심화시키고, 사림의 지방 문화의 발전과 향촌 사회의 교화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당파의 결속을 강화하여 봉당의 토대가 되고, 면세와 면역의 혜택을 누려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제사 비용의 명목 등으로 백성을 수탈하였다.

이러한 폐단 때문에 왕권 강화와 민생안정을 추구하던 흥선 대원군 사액서원 중 47개소만 남기고 노론의 정신적 지주였던 만동묘와 600여 개의 서원을 철폐하였다(1871).

20.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촌주위답을 지급하였다.
- ②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 주었다.
- ③ 인품과 관품을 고려하여 지급하였다.
- ④ 세금을 거두어 수조권자에게 분급하였다.
- ⑤ 경기 지방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정답: ⑤

* 과전법

조선은 관리의 경제 기반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고려 말의 사전 개혁으로 시작된 과전법(1391, 공양왕 3년) 토지 제도를 운영하였다.

과전은 직·산관 관료에게 지급된 수조권 토지로 원칙적으로 유력자의 토지 탈점을 막기 위하여 경기 지방의 토지로 지급하였다.(토지 부족으로 태종 때인 1417년에 과전으로 지급될 땅 1/3을 하삼도·충청·전라·경상도·로 이급하였다가, 세원의 감소와 식량부족으로 세종 때인 1431년 하삼도 사전을 다시 경기로 이환하게 하였다). 고려와 마찬가지로 농민의 사유지인 민전에도 수조권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받은 사람이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죽은 관료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 휴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전도 세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토지가 세습되자,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15세기 후반에는 직전법(1466)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다가 16세기 중엽에는 이마저도 폐지하였다(1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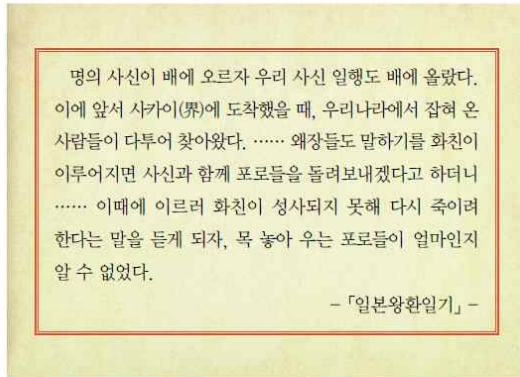
여기서 수조권을 받은 자는 스스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과전법의 경우에는 10분의 1을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수조권을 가진 양반 관료가 이를 남용하여 과다하게 수취하는 일이 잦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종 때 지방 관청에서 그 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1470, 관수관급). 이에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는 방식은 사라지고,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① 통일신라기의 향촌의 토지형태는 민정문서에 따르면, 자영농민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독립적인 연수유전답(민전 또는 정전)을 소유 경작하는 한편, 촌에 할당된 촌주위답(촌주에게 지급), 관모전답(관청의 소유지), 내시령답(관료전), 마전(마포를 공납으로 수취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정한 토지) 등이 있었다.

②, ③ 고려의 수조권 지급 토지인 전시과는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땃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조선의 과전법은 시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전시과 제도는 경종 때 처음 만들어졌다(976. 시정 전시과,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지급).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목종 때에 지급량을 줄이고(998, 개정 전시과, 관품만 반영, 문반 우대, 전직+현직에게 지급), 문종 때에는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하였다(1076, 경정 전시과, 무반 대우 향상).

21. 다음 상황 이후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 ②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항전하였다.
- ③ 삼포에서 왜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 ④ 국경 일대에 천리 장성이 축조되었다.
- ⑤ 명량 해전에서 이순신이 승리를 거두었다.

정답: ⑤

* 정유재란

1592년 4월, 정명가도를 내걸고 왜군이 부산진과 동래성으로 침략해 오자, 정발과 송상현 등이 힘껏 싸웠으나 막지 못하고 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그 후, 왜군은 세 길로 나누어 북쪽으로 쳐들어왔다. 조선 정부는 충주에 방어선(신립 장군이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그들의 북상을 막으려 하였으나, 이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 왜군이 한양 근처에 육박하자 선조는 의주로 피란하였다. 왜군은 평양과 함경도까지 북상하여 한반도 전역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였다.

조선은 육전에서와 달리 해전에서는 곳곳에서 왜군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고, 이어서 거북선과 판옥선을 앞세워 사천, 당포, 한산도 앞 바다(한산 대첩, 1592.7, 학익진으로 유명) 등 여러 곳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조선은 수군의 활약으로 제해권을 장악하여,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전라도 곡창 지대와 황해안을 지킬 수 있었다.

수군이 해전에서 승리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향토를 방어하고 조국을 구하려고 하였다. 향토 지리에 익숙한 의병은 그에 알맞은 전술과 전략을 개발하여 적은 병력으로 적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의병은 경상도 의령에서 박재우(홍의장군)가 처음 일으킨 후 조현, 고경명, 정문부, 유정(사명대사) 등이 여러 지방에서 왜군과 싸워 이겼고, 김시민은 진주에서 적군 2만명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으나 장렬히 전사하였다(진주대첩, 159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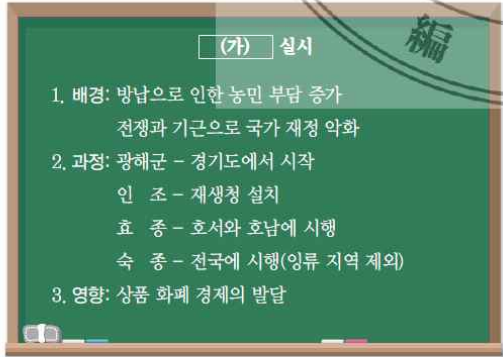
수군이 승리를 거두고 의병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무렵, 요청한 명의 원군까지 도착하여 조선은 왜군에 반격을 가하여 평양성에서 조.명 연합군은 크게 승리하였으나(1593.1.6), 벽제관에서 일본군은 명군을 대파하여(1593.1.25.) 위기에 빠졌다. 다행히 권율이 행주 산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행주대첩, 1593.2)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에 경상도 해안 지방으로 밀려났던 왜군은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휴전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3년간을 끌어 오던 화의 교섭이 실패하자, 왜군은 다시 공격해 왔다(정유재란, 1597). 임진년과 달리 이번에는 조선군도 군비를 잘 갖추고(1594년 훈련도감 설치) 명군과 협조하여 왜군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다. 또, 물러났던 이순신이 다시 기용되어 “生即死 死即生”을 외치며 명량에서 왜군을 대파하였다(1597.9).

마침 도요토미가 사망하고 전세도 불리해지자 왜군은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이순신은 퇴각하는 왜군을 노량에서 격멸하였으나, 적의 유탄에 맞아 장렬하게 전사하며(1598.11.19) 전쟁은 끝이 났다.

- ① 이종무의 쓰시마섬 정벌 (1419, 세종 1)
- ② 삼별초의 항쟁 시작 (1270, 강화도)
- ③ 삼포왜란 (1510, 중종 5)
- ④ 고려 천리장성 축조 (1033~1044)

22.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군포를 1년에 1필로 줄여 주었다.
- ②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
- ③ 공납의 기준을 토지 결수로 바꾸었다.
- ④ 비옥도에 따라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었다.
- ⑤ 풍흉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부과하였다.

정답: ③

* 대동법(공납의 전세화)

조선 후기들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자, 농민들의 공납(방납)의 폐단을 개선하고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1608, 이원익의 건의),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1708년 완결, 평안.함경도와 제주도 제외).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상공만 폐지, 별공과 진상은 여전히 존속). 주무 관청은 선헤

청이다.

농민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이 때문에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던 공물 부담은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라는 어용 상인이 나타났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공인이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농민도 대동세를 내기 위하여 토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쌀, 베, 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①, ② 조선 후기에 들어 군역의 폐단(군포 징수의 과다)이 심해지자 이를 시정하려는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마침내 군역법이 시행되었다(1750). 이로부터 농민은 1년에 군포를 기존의 2필에서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군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④, ⑤ 세종 때에는 조세 제도를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법(1444)을 마련하여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23. 밑줄 그은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이 자료는 조선 시대
승정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부서의 명칭이
바뀌어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 ① 인조 때부터의 기록이 남아 있다.
- ② 국왕과 신료들이 열람할 수 있었다.
- ③ 시정기나 사초 등을 토대로 기술되었다.
- ④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⑤ 업무 관련 내용이 일기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정답: ③

* 승정원 일기

승정원 일기는 조선시대에 왕명 출납을 관장 하던 승정원에서 매일매일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기록한 일기이다.

조선 개국 초부터 일기가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에 소실되어 1623년(인조 1)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270여 년간의 일기만이 현존한다.

승정원 일기는 역사를 연도에 따라 서술하는 편년체 형식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다. 승정원의 7품 주서(注書)가 기록한 매일의 일기를 한 달 분씩 정리하여 국왕에게 올려서 재가를 받은 후, 한 책으로 엮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두 책으로 나누기도 하였고, 윤달의 일기는 별도

의 책으로 엮었다. 한편 임금에게 올리기 전에 일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내용은 국가의 중대사에서부터 의례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국정 of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승정원의 전모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양도 매우 방대하다. 또한 국왕과 신하들의 국정 논의 내용, 국왕에게 올린 상소문 내용 등이 축약 없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조선에서는 국가 정책에 참고해야 할 일이 있으면 국왕과 신료들이 승정원 일기에서 이전 사례를 찾아보며 정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편찬을 위한 첫 번째 자료로서도 활용하는 등 그 가치가 대단히 높았으며, 현재에도 조선시대 연구에 1차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듯 승정원 일기는 조선시대의 최고 기밀 기록이며, <비변사등록>, <일성록> 등과 더불어 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며, 2001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③ 조선 왕조 실록 편찬에는 춘추관이 각 관청에서 작성한 업무일지인 등록(臚錄)을 종합정리하여 매달 1책 또는 그 이상으로 묶어 보관하는 시정기(時政記)와 사관(史官: 협의의 사관으로 춘추관원을 겸직하는 예문관의 7~9품 관리 봉교, 대교, 검열)이 작성한 국왕의 언동, 신하와의 정치논의 등을 기술한 자료인 사초(史草), 각사 등록(臚錄), 조선시대에 왕명 출납을 관장하던 승정원에서 매일매일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기록한 일기인 승정원일기(춘추관관원 겸직인 주서가 작성), 조보(朝報: 관청 소식지)가 실록편찬의 기본 자료였고, 문집·일기·야사류 등도 이용되었으며, 후기에는 비변사등록과 일성록(국왕 일기)도 사용되었다.

24. (가) 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가)은/는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 특정 상품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판매하는 물품은 시기에 따라 여섯에서 여덟가지였다. 19세기 중엽 간행된 육전조례에는 입전, 면주전, 백목전, 지전, 저포전·포전, 내·외어물전 등으로 되어 있다.

- ① 해상공국 설립을 요구하였다.
- ② 황국 중앙 총상회를 조직하였다.
- ③ 왜관을 중심으로 무역을 하였다.
- ④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였다.
- ⑤ 책문 후사에서 대청 무역을 주도하였다.

정답: ②

* 시전상인

조선은 고려보다도 상업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종로 거리에 상점가를 만들었다. 여기에 개경에 있던 시전 상인을 한양으로 이주시켜 장사하게 하는 대신에 점포세와 상세를 거두었다. 시전 상인은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이들 시전 중에서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베, 무명을 파는 점포가 가장 번성하였는데, 후에 이를 육의전이라 하였다. 또, 이들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시서를 두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사상(私商)들이 종루, 칠패, 배오개(이현), 송파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시전의 상권을 잠식하자 시전상인들은 국역을 담당하는 대가로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인 금난전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상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정부는 통공

정책을 실시하여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1791, 신해통공) 이들의 활동은 다소 위축되었다.

개항 이후에는 조청수륙무역장정의 체결로 청·일 등 외국 상인들이 침투해 오자 이에 맞서 1890년 철시 투쟁을 벌였으며, 황국 중앙 총상회(1898) 등을 조직하여 상권 수호 운동을 발전시켜 나갔다.

① 지방 장사에서 활동하는 보부상의 조직은 초기에는 보상(보짐장수)과 부상(등짐장수)이 다른 조직체계를 가지고 발달하였으나, 개항 이후 외국 상인들에게 점차 상권을 위협받게 되자 보부양단을 통합하여(좌사:부상, 우사:보상) 군국아문 관할 하에 외국상인의 불법적 상행위를 막고, 외읍무뢰배의 불량행상의 폐단을 일소함으로써 보부상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민폐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해상공국(1883)이 설치되었다

③ 17세기 이후로 일본과의 관계가 점차 정상화되면서 왜관 개시를 통한 대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때 활약하던 사상(私商)이 내상(동래 상인)이다.

④ 조선 후기 최대의 사상(私商)인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지점(송방)을 설치하여 활동 기반을 강화하였는데, 주로 인삼을 재배, 판매하고 대외 무역에도 깊이 관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⑤ 책문 후시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대청 사무역 장소로 양국 사신의 왕래를 따라 책문에서 요동 상인과 의주의 만상, 개성의 송상간의 밀무역이 성행하였다.

25.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1점]

궐내에 보관하던 기름 먹인 장막을 허적이 다 가져갔음을 듣고, 임금이 노하여 “궐내에서 쓰는 장막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한명회도 못하던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시종에게 알아보게 하니, 잔치에 참석한 서인(西人)은 몇 사람뿐이었고, 허적의 당파가 많아 기세가 등등하였다고 아뢰었다. 이에 임금이 남인(南人)을 제거할 결심을 하였다. …… 허적이 잡혀오자 임금이 모든 관직을 삭탈하였다.

- 「연려실기술」 -

1623	1636	1674	1724	1776	1801
(가)	(나)	(다)	(라)	(마)	
인조 반정	병자 호란	숙종 즉위	영조 즉위	정조 즉위	신유 박해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③

* 유악 사건과 경신환국(1680)

조선 후기에 봉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정치 집단 간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고, 왕권 자체도 불안해졌다. 이에 강력한 왕권을 토대로 국왕이 정치의 중심에 서서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이 제기되었다.

숙종(1674~1720)은 인사 관리를 통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에게 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편당적인 인사 관리로 일관하여 환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일당 전제화).

환국을 왕이 직접 나서서 주도함에 따라, 외척이나 종실 등 왕과 직결된 집단의 정치적 비중이 커졌다. 정치 권력은 점차 고위 관원에게 집중 되었으며, 언론 기관이나 재야 사족의 정치 참여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봉당 정치의 기반도 무너졌다.

경신환국(1680): 유악(기름먹인 장막) 사건을 빌미로(실제는 도체찰사 문제) 서인이 남인(허적, 윤휴 등)을 몰아내고 집권. 남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 서인의 노론(강경론), 소론(온건론) 분화

기사환국(1689): 남인이 원자(장희빈 소생) 정함에서 서인을 몰아내고 집권. 송시열 등 사사.

갑술환국(1694): 인현왕후(서인 옹호) 복위 관련, 남인이 쫓기고 서인 재집권

26. 다음 건의로 시행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이곳은 우리나라와 청나라의 경계(境界) 지대인데, 수백 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북쪽 변경 고을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수가 십여만 명이나 됩니다. …… 전에 분수령 정계비 아래 토문강 이남의 구역은 우리나라 경계(境界)로 확정되었으니 …… 관리를 특별히 두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여 조정에서 백성을 보살펴 주는 뜻을 보여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① 효종이 북벌 정책을 추진하였다.
- ② 광해군이 중립 외교 정책을 실시하였다.
- ③ 세종이 백성을 국경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 ④ 고종이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하였다.
- ⑤ 숙종이 백두산 일대의 방비를 철저히 하도록 명하였다.

청은 중국 대륙을 차지(1644)한 후에도 그들의 본거지였던 만주 지방에 관심을 기울여 이 지역을 성역화하였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의 일부가 두만강을 건너 인삼을 캐거나 사냥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청과 국경 분쟁이 일어났다.

이에, 숙종 때에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하여 정계비를 세웠다(1712). 이 정계비에서 양국 간의 국경은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백두산 정계비는 그 후 조선 실학자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어느 면으로는 토문에 대한 해석(청은 두만강으로, 조선은 송화강 지류로 보는) 차이에서 간도 영유권의 문제로 발전하여 현재까지도 학자들 간에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세기 후반 이후로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만주(간도)였고,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간도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다. 대한 제국 정부는 간도에 이미 수십 만 명의 한민족이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여 북변(간)도관리(北邊島管理)를 설치하고 간도 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하고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시켰다(1902).

그러나 을사조약 이후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통감부는 교민의 통제를 위해 1907년 간도파출소를 설치했으나 1909년 청에서 안봉선 철도 부설권(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어 내는 대가로 청과 간도협약을 맺어 간도는 청의 영토로 귀속되고 말았다.

정답: ④

* 간도 관리사 파견

27. 다음 사건 이후에 나타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난병들이 대궐을 침범하니 왕비는 밖으로 피신하고 이최응, 민겸호, 김보현은 모두 살해되었다. …… 고종은 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대원군을 불렀으며, 대원군은 난병을 따라 들어갔다. …… 대원군은 명령을 내려 통리기무아문과 무위영, 장어영을 폐지하고 5영의 군제를 복구하였다.

- 「매천야록」 -

- ①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② 청 상인이 내지 통상권을 얻었다.
- ③ 흥선 대원군이 텐진으로 납치되었다.
- ④ 이만손이 주도하여 만인소를 올렸다.
- ⑤ 뮐렌도르프가 외교 고문으로 파견되었다.

정답: ④

* 임오군란(1882) 이후의 상황

개항 후 일본 상인의 대량 수입으로 점차 쌀이 부족해진다다가, 때마침 1882년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 쌀값이 폭등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의 하층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져 갔다.

한편, 신식 군대인 별기군에 비하여 구식 군인들에 대한 대우는 매우 열악하였다. 심지어 민씨 일파 등 집권층의 부패로 구식 군인에게 13개월 만에 월급으로 지급한 쌀에는 겨와 모래가 섞여 있었다. 이에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에 불만을 품었던 구식 군인들은 마침내 선혜청을 습격하며 임오군란을 일으켰다(1882.6).

구식 군인들은 흥선 대원군을 찾아가 지원을 요청했으며, 정부 고관들의 집을 부수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이 와중에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이 죽었다.

그 후 서울의 하층민들이 가세하여 세력이 더욱 커지자, 구식 군인들은 왕궁을 습격하고 민씨 일파 등 고위 관리들을 처단하였다. 군인들이 궁궐에까지 침입하자 민비는 종적을 감췄고(장호원 피신) 고종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흥선 대원군에게 정권을 맡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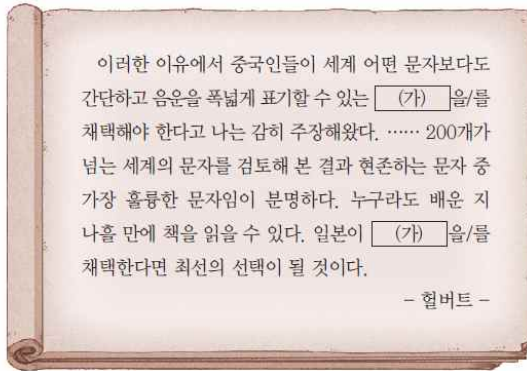
그러나 민씨 일파로부터 군대 파견을 요청 받은 청은 일본의 무력 개입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군대를 출동시켜 군란을 진압했으며, 군란의 책임을 물어 흥선 대원군을 자국으로 납치해 갔다.

또한 청은 군대를 주둔시키며,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고문 파견: 마건창, 뮐렌도르프)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8)을 체결하여 양화진을 통한 한성개잔권과 내지통상권을 얻어 도성의 시장과 개항장 밖 내륙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일본은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군란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굴복한 정부는 제물포 조약(1882.7)을 체결하여 사과 사절단의 파견, 주모자 처벌, 배상금 지불, 공사관 경비를 위한 군대 주둔 등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았다.

④ 러시아를 막는 방책인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을 담은 책인 ‘조선책략’이 2차 수신사(1880)로 다녀온 김홍집의 소개로 국내에 유포되며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났다. 이에 조선에서는 미국과의 수교를 고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또한 위정척사 세력(이만손, 홍재학)의 개화 운동 반대와 결합되어 영남 만인소를 야기시켰다(1881)

28. (가)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가갸날을 만든 단체에 대해 조사한다.
- ② 허균의 홍길동전이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
- ③ 이암이 농상집요를 소개한 배경을 알아본다.
- ④ 주시경이 편찬한 국어문법의 특징을 찾아본다.
- ⑤ 유네스코에서 세종 대왕 문해상을 제정한 이유를 살펴본다.

정답: ③

* 한글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는 한자음의 혼란을 줄이고 피지배층을 도덕적으로 교화시켜 양반 중심 사회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문자의 창제가 요청되었다.

이에, 세종은 훈민정음 28자를 창제(1443)하여 반포하였다(1446).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으며, 자기의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자를 만드는 원리가 매우 과학적인 뛰어난 문자이다.

① 3·1 운동 이후 임경재, 장지영 등의 주도로 조선어 연구회가 창립(1921)되면서 국어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들은 한글 연구와 더불어 강습회를 열어 한글 보급에 노력하였다. 또, 한글 기념일인 '가갸날'을 제정하여 우리말쓰기를 권장하였고, '한글'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여 한글 대중화에 이바지하였다.

② 최초의 한글 소설인 허균의 홍길동전(1612)은 서열에 대한 차별의 철폐, 탐관오리의 응징을 통한 이상 사회의 건설을 묘사하는 등 당시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③ 고려 후기에는 이암이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요(1349)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는 중국 발농사 위주의 화북 농법을 위주여서 논농사 위주의 우리 실정에 다소 맞지 않았다.

④ 갑오개혁 이후 공문서가 국·한문 혼용으로 제도화되고, 학교 교육에서 국·한문체 교과서가 사용되면서 언문일치의 문자 생활이 가능해졌다. 유길준의 서유견문(1985)도 국·한문 혼용체 보급에 기여하였다. 1907년에는 국문 연구소가 만들어져 주시경('국어문법' 저술, 1910), 지석영 등의 주도로 국문의 정리와 국어의 이해 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⑤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은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1989년에 제정돼 1990년부터 시상해오고 있는 상으로서, 문해(문맹퇴치)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2명(곳)에게 매년(9월 8일 문해의 날) 시상하는 상이다.

29. 지도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금국 정벌론을 내세웠다.
- ㄴ. 광산 노동자들이 참여하였다.
- ㄷ. 서북인 차별이 원인이 되었다.
- ㄹ. 개경파와 서경파의 대립으로 일어났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홍경래의 난(1811)

홍경래의 난은 세도정치에 시달리던 농민들과 부당한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어 오던 평안도 지방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몰락한 양반인 홍경래 등이 평안도에서 일으킨 농민 봉기였다(1811). 몰락한 양반인 홍경래의 지휘 하에 영세 농민, 중소 상인, 광산 노동자 등이 합세하였다.

이는 경화(京華) 세도정권에 의해 서북지역 민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조선 초부터 서북 출신들은 고려의 유민으로 구분되어 등용되지 못했고 이후

천한 신분으로 여겨져 왔으며, 한양에서 치뤄지는 대과에서 시골 선비에 대한 차별이 심하여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기가 어려웠다.

경제적으로 평안도 지방을 중심으로 대청무역이 발달하여 만상, 유상 등의 대상인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경화 세도정권과 특권 상인에게 수탈당하였고, 금·은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 평안도 지역의 광산 개발이 활발하였고 빈농·유민들이 잠채(潛採)에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처음 가산에서 난을 일으켜 선천, 정주 등을 별다른 저항없이 점거하였다. 한때는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하였으나 정주성 싸움에서 패하여 진압되었다 5개월 만에 평정되었다.

홍경래의 난은 평안도의 농민이 하나로 뭉쳐 탐관오리의 착취와 지방 차별에 반대한 농민 항쟁이었다. 이 난은 평안도 지역에 한정되어 일어났고, 지도자들이 농민층을 조직적으로 끌어들이지 못함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그 뒤에 발생한 농민봉기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 ㉡ 고려 태조 이래의 복진정책을 계승하여 서경으로 천도할 것과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며 (칭제건원) 금국 정벌을 주장하며 일어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1135)은, 문벌 귀족 사회 내부의 분열과 지역 세력 간의 대립, 풍수지리설이 결부된 자주적 전통(불교+도참사상) 사상(서경파)과 사대적 유교 정치 사상(개경파)의 충돌, 고구려 계승 이념(서경파)과 신라 계승 이념(개경파)의 충돌 등이 얹혀 일어난 것으로, 귀족 사회 내부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었다.

30. 밑줄 그은 '선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무오년(戊午年) 2월 청명일에 방외(方外)의 친구 초의는 한 잔의 술을 올리면서 선생의 영전에 고하나이다. 슬프다! 선생은 천도(天道)와 인도(人道)를 닦아 여러 학문을 체득하시고, 글씨 또한 조화를 이루어 왕희지·왕현지의 필법을 능가하고, 시문에 뛰어나 세월의 영화를 휩쓸고, 금석에서는 작은 것과 큰 것을 모두 규명하여 중국에까지 이름을 떨치셨나이다.

- 「초의선집」 -

- ① 흑산도 유배 중에 자산어보를 저술하였다.
- ② 역대의 명필을 연구하여 추사체를 완성하였다.
- ③ 조선 후기의 대표적 문인화인 세한도를 그렸다.
- ④ 옹방강, 완원 등의 청나라 학자들과 교유하였다.
- ⑤ 북한산비가 신라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정답: ①

* 추사 김정희(1786~1856)

조선 후기 세도정치기의 인물인 김정희는 서화(書畵) 뿐만 아니라 금석학에도 독보적인 위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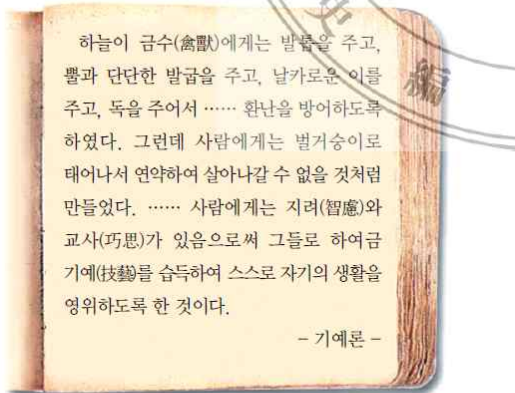
대표적인 그의 그림인 '세한도'는 문인화로서 노론 벽파인 그가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할 때, 북경에서 귀한 책을 구해다 준 제자 이상적의 인품을 송백(松柏)의 지조에 비유하며 그 답례로 그려준 그림이다.

서예에서는 우리 서예 발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금의 필법을 두루 연구하여 굳센 기운과 다양한 조형성을 가진 추사체를 창안하여 서예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김정희는 청에 가서 고증학의 대가인 옹방강, 완원 등과 교유하고 돌아와 시·서·화를 일치시킨 고답적인 이념미를 구현코자 하였으며 '금석과안록'을 지어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① 신유사옥(1801) 때 흑산도로 유배를 간 정약용의 형 정약전은 그 지역의 어류를 조사한 '자산어보'를 저술하였다.

31.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반계수록을 지어 균전론을 주장하였다.
- ② 거중기를 제작하여 화성 축조에 기여하였다.
- ③ 동의수세보원으로 사상 의학을 체계화하였다.
- ④ 북학의를 저술하여 상공업 육성을 강조하였다.
- ⑤ 최초로 100리척을 사용하여 지도를 제작하였다.

정답: ②

* 정약용(1762~1836)

조선 후기에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확신하고 기술의 개발에 앞장섰던 사람은 정약용이었다. 그는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것은 기술 때문이라고 보고, 기술의 발달이 인간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었다(기예론). 그리하여 스스로 많은 기계를 제작하거나 설계하였다.

그는 서양 선교사가 중국에서 펴낸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만들었는데, 이 거중기는 수원 화성을 쌓을 때에(1794~1796) 사용되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줄이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정약용은 정조가 수원에 행차할 때 한강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배다리(주교)도 설계하였다.

① 농업 중심 개혁론의 선구자인 유형원(1622~1673)은 '반계수록'에서 유형원은 신분제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골고루 토지를 나누어 주자는 균전론을 내세워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③ 19세기에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1894)을 저술하여 사상 의학을 확립하였다. 이는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4가지로 구분하여 치료하는 체질 의학 이론으로, 오늘날까지도 한의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④ 중상적 실학자인 박제가(1750~1805)는 청에 다녀온 후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창하였다. 특히 우물물 비유를 통하여 적절한 소비를 강조하였다.

⑤ 18세기 정상기(1678~1752)의 동국지도(1740)는 최초로 100리 척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과학적인 지도 제작에 공헌하였다.

32. (가), (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 제1조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10조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에서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과 관계 되더라도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의하여 처리한다.
- (나) 제4조 미국 인민이 상선이나 해안에서 조선국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주는 등의 일이 있을 때에는 미국의 영사관 혹은 미국에서 파견한 관원에게 넘겨 미국 법률로 체포하고 처벌한다.
제5조 무역을 목적으로 조선국에 오는 미국 상인 및 상선은 모든 수출입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 ① (가) - 거중 조정 조항이 있었다.
② (가) - 일본 공사관 경비병 주둔을 허용하였다.
③ (나) - 무력시위의 결과로 체결되었다.
④ (나) -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⑤ (가), (나) - 조약 체결 이후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정답: ⑤

*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1876)과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강화도 조약(1876.2): 1873년에 고종의 친정으로 흥선 대원군이 물러나고 민씨 세력이 집권하면서 개항과 통상 무역을 주장하는 집단이 정치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일본은 한반도 침략을 노리며 윤요호 사건(무력시위)을 일으켰다(1875). 이를 계기로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 나라의 문을 열었다

강화도 조약은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부산 및 다른 두 곳을 개항해야 했으며, 일본에 치외법권과 해안 측량권 등을 내준 점에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 조약에 이은 후속 조치인 동년 8월의 수호조규 부록과 무역규칙(통상장정)으로 일본 화폐 사용, 양곡의 무제한 유출, 일본 상품에 대한 무관세 등이 허용되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5): 청은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적극 알선하였다. 조선에서도 미국과 조약을 맺어 근대적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서양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양국 중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을 경우 반드시 서로 돕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주선한다는 거중 조정 조항,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항 등 강화도 조약과 달리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치외 법권, 최혜국 대우 등이 포함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② 임오군란(1882.6) 직후 일본은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군란의 책임을 묻자, 이에 굴복한 정부는 제물포 조약(1882.7)을 체결하여 사과 사절단의 파견, 주모자 처벌, 배상금 지불, 공사관 경비를 위한 군대 주둔 등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았다.

⑤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 정부는 일본에는 수신사(1차-1876, 2차-1880)와 조사시찰단(1881)을 청에는 영선사(1881)를, 미국에는 보빙사(1883, 서양에 파견된 최초의 사절단)를 보내어 신신문물을 견학시키고 개화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33. (가)에 들어갈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 ①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 ② 을미개혁이 실시되었다.
- ③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④ 고부에서 농민들이 만석보를 열었다.
- ⑤ 삼례에서 교조 신원 운동이 일어났다.

정답: ①

*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

<고부 봉기: 1894.2.17>

- 직접적 원인: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만석보 저수지 축조 문제)
- 전봉준이 사발통문을 돌려 1천여 명의 농민을 이끌고 고부 관아 습격 → 관리들을 징벌한 뒤 해산
- 정부는 조병갑을 탄핵(후임 박원명)하고 안핵사(이용태) 파견

<1차 봉기>: 1894.4.25, 반봉건, 남접 중심

- 안핵사(이용태)가 봉기 관련자를 역적으로

몰아 탄압

- 전봉준(총대장), 김개남, 손화중 등 무장 기포(4.25, 재봉기) → 고부 점령 → 각지 동학군 백산 집결(5.4, 백산 봉기, 4대 강령 선포) → 황토현(정읍)에서 감영군 격퇴(5.8), 황룡촌(장성) 전투에서 경군 격퇴(5.25) → 전주성 점령(5.31)
-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청군 파견(아산만 상륙 6.8~12) → 텐진 조약 위반을 명분으로 일본군 파견(인천 상륙 6.7~12)
- 전주 화약 체결(6.11): 동학 농민군은 외국 군대 철수와 폐정 개혁을 조건으로 정부와 화친 → 집강소 설치(6.11) → 일본의 궁성 침입(7.23)

<집강소 시기: 1894.6.11.~10.10>

- 전라도 각 고을에 설치한 동학 농민군의 자치 기구
- 폐정 개혁안 실천 → 불량한 지주와 부호 처벌, 신분 질서 해체, 치안 유지

<2차 봉기: 1894.10.11.~12.31>, 남접+북접, 항일구국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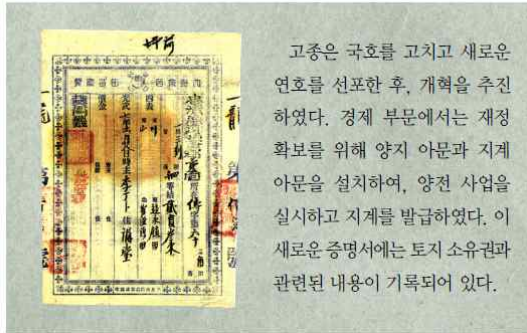
-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7.23) 내정간섭, 개혁 강요 →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봉기
- 남접(전봉준)·북접(손병희) 연합부대 형성(논산에 대본영 설치): 11월 초
- 전봉준이 이끄는 주력 부대가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정부군에게 패퇴(12.11~18) → 전봉준 등 동학 지도자 체포(12.30)

② 을미개혁 (1895.8~1896.2)

③ 시모노세키조약(1895.4, 청일전쟁 종결)

⑤ 동학 교조 신원 운동: 공주(1892.10) → 삼례(1892.11) → 서울(1893.2) 복합상소 → 보은(1893.3)

34. 다음 문서를 발행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 ②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다.
- ③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 ④ 한성 사범 학교를 설립하였다.
- ⑤ 공·사 노비 제도를 폐지하였다.

정답: ③

* 대한제국과 광무개혁(1897~1904)

아관 파천(1896.2) 이후 열강의 침탈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며, 고종을 황제로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고종은 1년 만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왔다(1897.2).

환궁 후 고종은 연호를 광무라 고친 후 환구단을 쌓아 황제 즉위식을 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선포하였다(1897.10). 대한 제국은 '만국공법'에 기초하여 건국된 국가로, 고종은 국내외에 대한 제국이 자주 독립 국가임을 분명히 하였다.

1899년에는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여 황제가 군대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한 전제 군주임을 강조하였다.

대한 제국은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원칙 아

래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대한 제국은 국가의 자주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군사력 강화와 재정 확충, 상공업 육성에 주력하였다.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하고 황제호위 부대를 증강하였으며, 장교 양성을 위해 무관 학교를 설립하였다.

대한 제국은 조세 수입을 늘리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양지아문(1898)을 설치하여 양전 사업을 하고, 지계아문(1901)을 통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 물건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이와 함께 상공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여 섬유, 운수, 광업, 철도 등의 분야에서 근대적 공장과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근대적 과학 기술을 일으키기 위해 의학교, 상공학교, 외국어 학교 등을 세우고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① 개항(강화도 조약: 1876.1) 이후 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을 전담할 기구로 통리기무아문(1880)을 설치하였고, 신식 군대인 별기군(1881)을 창설하였다.

②, ⑤ 1차 갑오개혁(1894. 7~12) 때에 김홍집 내각은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1894.7.27) 공·사 노비법 등의 신분 제도를 폐지하는 등 봉건적인 악습을 혁파하였다

④ 2차 갑오개혁 때(1894.12~1895.7)인 1895년 2월에 반포된 교육 입국 조서의 정신에 따라 근대 교육 제도가 확립되면서 소학교와 사범 학교(1895.4, 한성사범학교 설립), 외국어 학교 등 각종 관립 학교가 설립되었다.

35.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모의 재판 기소문

범죄 사실

피고인은 초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여 각종 식민지 악법을 제정한 자로서 죄목은 다음과 같다.

1. 주한 통감 시절 의병들을 살육하는 데 앞장섰던 아카시를 헌병 사령관 겸 경무총감에 임명함으로써 헌병 경찰 제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 (가)

<보 기>

- ㄱ.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여 식량을 수탈하였다.
 ㄴ. 조선 태형령을 시행하는 등 무단 통치를 하였다.
 ㄷ.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여 독립운동가를 탄압하였다.
 ㄹ. 토지 조사 사업으로 조선 농민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1910년대 일제 무단통치

한일합방(1910.8) 직후 일제는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여 현역 군인인 헌병 사령관을 중앙의 경찰 최고 책임자인 경무 총감으로 임명하고, 전국 곳곳에 헌병 분대와 파출소, 경찰서와 주재소 등을 두어 한국인을 감시 억압하였다. 전국 곳곳에 배치된 헌병과 경찰은 한국인의 모든 일상생활에 관여했으며, 즉결 처분권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태형 등의 형벌을 가할 수도 있었다. 특히 조선 태형령(1912)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야만적인 형벌로 1920년 폐지되었다.

그 밖에도 한국인의 저항을 누르기 위해 일본군 2개 사단 병력이 전국 주요 도시에 배치되었다. 관리·교사들까지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다녔다. 이는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무단 통치의 모습을 보여 준다.

경제적으로는 1910년에 시작된 토지 조사 사업(1910~1918)이다.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하면서 본격화된 토지 조사 사업은 식민지 재정을 위한 지세 확보를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 토지 가격, 지형 및 용도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총독부는 당사자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소유권을 인정하고, 대한 제국 정부 소유지와 황실 소유지, 미신고 토지 및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 등은 강제로 빼앗았다. 또,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소작농민이 오랫동안 누려 왔던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정하여 몰락을 초래했다.

이와 아울러 일제는 회사령을 공포하여 (1910), 회사를 설립 하거나 해산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 ㉡ 3·1 운동(1919) 이후 1920년대 일제는 이른바 문화 통치를 표방하였다. 하지만, 이는 가혹한 식민 통치를 은폐하려는 것에 불과하였다. 문관 총독 임명을 가능케 하였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고, 헌병 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바꾸었지만, 경찰 수와 장비 등 경찰력은 오히려 강화하였다. 또, 일제는 소수의 친일 분자를 키워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민족 운동가들도 회유하는 한편으로, 일제에 저항하는 독립 운동가들은 철저히 탄압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제정된 치안유지법(1925)은 일본제국과 식민지 전체에 적용되는 천황 통치체제 및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는 법률로서 독립운동과 사회주의를 탄압(사상 전향을 강요)하기 위한 법령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산미 증식 계획(1920~1934)으로 인해 늘어난 생산량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이 일본으로 반출되어 국내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지주는 쌀 수출과 수리시설 개선 비용을 소작농에게 전가시키며 다소 이익을 보기도 했지만, 대다수인 소작농은 수리 조합 등 각종 비용 부담이 늘어나며 많은 고통을 겪고, 자작·자소작농들은 토지를 잃고 화전민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36.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지, 기타 출판물의 게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할 수 있다.

- ①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② 사립 학교령이 공포되었다.
③ 조선 민흥회가 창립되었다.
④ 조선어 학회 사건이 일어났다.
⑤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가 조직되었다.

정답: ④

* 총동원 체제(1938~1945) 시기의 역사적 사실

1930년대에 일제는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면서(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한반도를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로 삼았다. 1940년대에는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내선 일체의 구호를 내세워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고, 어용신문인 매일신보를 제외한 조선어 신문을 모두 폐지하여 대표적 민족신문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폐간시켜 언론을 통제하였다. 1941년 천황 칙령에 따라 초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소학교의 명칭 '황국신민의 학교'라는 의미의 국민학교로 바꾸고, 선택으로 남아있던 조선어 과목을 완전 폐지하였다. 또,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쳐 쓰도록 하고(창씨개명: 1939),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궁성 요배, 신사 참배 등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1938년에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인적 수탈로 일제는 강제 징용(1939년 제정, 1944년 전면 실시)으로 한국인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학도 지원병 제도(1943), 징병 제도(1944) 등을 실시하여 수많은 우리 젊은이를 전쟁에 동원하였다. 또, 젊은 여성을 정신대라(1944)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 군수 공장 등에서 혹사시켰으며(작업복 몸빼 유행), 그 중 일부는 전선으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물적 수탈로는 양곡 배급제와 함께 미곡공출을 실시하였으며(1940), 물자 부족이 심화되자 일제는 군수 산업 이외의 기업 활동을 통제하기도 하였으며, 광물 자원의 약탈은 물론 학교의 철문이나 집안의 손가락까지 강제로 빼앗아 갔다(금속 공출, 1942).

①, ③ 사회주의 단체인 정우회는 1926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민족 협동 전선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이 조선 민흥회(1926.7 창설)에 속한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져 신간회가 결성되었다(1927.2).

② 대한 제국 말기에 민족 지도자들이 애국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많은 사립학교를 세우자 일제는 1908년 사립학교령을 제정하여 사립학교 설립을 규제하였다

④ 일제는 한글연구단체인 조선어 학회를 독립 운동 단체로 간주하여 관련된 인사들을 체포하고, 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를 조선어 학회 사건(1942)이라 한다.

⑤ 실력양성운동의 일환으로 1923년 3월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가 조직되어 신지식과 교육의 진흥을 위한 고등 교육 기관으로써 민립 대학 설립을 추진하였다.

37.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시 · 민 · 특 · 강

-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축석루가 있는 충절의 고장, 우리 시의 뿌리를 알기 위해 시민 특강을 기획하였습니다.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간: ○○월 ○○일 ~ ○○일
- 장소: △△ 시청 세미나실
- 특강 내용

	시대	주제
1강	고려 시대	최충현의 식읍과 농장
2강	조선 시대 1	임진왜란과 김시민
3강	조선 시대 2	임술 농민 봉기와 유계춘
4강	일제 강점기	(가)

- ① 오산 학교 건립
- ② 기호흥학회 설립
- ③ 관민 공동회 개최
- ④ 대한 광복회 조직
- ⑤ 조선 형평사 창립

정답: ⑤

* 진주의 역사

- 이의민을 타도하고 정권을 잡은(명종: 1196) 최충현(1149~1219)은 무신 정권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봉사 10조와 같은 사회 개혁책을 제시하는 한편, 농민 항쟁의 진압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사회 개혁책은 흐지부지되고, 그는 오히려 많은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고 사병을 양성하여 권력 유지에 치중하였다. 즉, 진강후(최우 이후로는 진양후)에 봉해져 진주 일대를 식읍으로 받았다.

- 임진왜란 때 진주 목사 김시민은 진주에서 적군 2만명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며 장렬히 전사하였다(진주대첩, 1592.10).

- 세도정치기(1800~1863) 최대 농민봉기인 임술농민봉기는 진주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진주에서의 농민봉기(1862)는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수탈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몰락한 양반 출신인 유계춘 등을 중심으로 일으킨 것이었다.

- 백정들은 3·1 운동(1919) 이후 사회적 차별을 스스로 철폐하기 위하여 진주에서 1923년 조선 형평사를 결성하고 여러 사회 운동 단체와 협력하며 형평운동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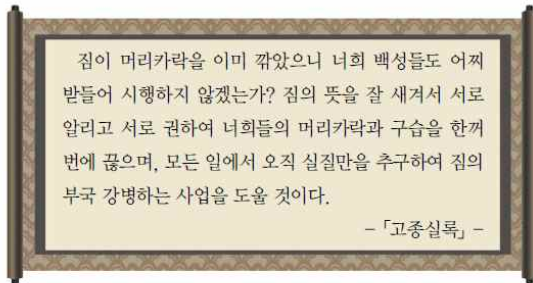
① 신민회 회원인 이승훈은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평북 정주에서 오산학교(1907)를 안창호는 평양에서 대성학교(1908)를 설립하였다.

② 기호흥학회는 정영택 등이 1908년 서울에서 조직한 교육진흥계열의 애국계몽단체이다.

③ 독립 협회(1896.7~1898.12)는 자주 국권, 자유 민권 등을 달성하려는 정치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만민 공동회와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1898.10).

④ 대한 광복회는 1910년대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항일 단체로, 채기중의 (대한)광복단(1913)과 이시영, 서상일 등 경북 유림이 중심이 된 조선 국권 회복단(1915.1)이 통합하여 대구에서 출범한, 즉 의병 계열과 애국 계몽 운동 계열의 비밀 결사들을 통합한 비밀결사체이다(1915.7). 총사령은 박상진이고 양반과 상민이 함께 가입하여 활동했고 지도급 인사들 중에는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38. 다음 상황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유인석, 이소응 등 유생들이 주도하였다.
- ② 해산 군인의 합류로 전투력이 향상되었다.
- ③ 국제법상 교전 단체로 인정받으려 하였다.
- ④ 임병찬의 주도로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였다.
- ⑤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고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다.

정답: ①

* 단발령과 을미의병(1895~1896)

을미의병(1895~1896): 을미사변(민비 시해)과 을미개혁의 단발령을 원인으로 하며 주로 양반 유생이 중심이 되는 위정척사 운동의 일환으로 발생하였으나, 고종의 해산 권고조치로 해산하였다. 그러나 일부는 활빈당, 영학당 등에 가담하여 반침략 반봉건 투쟁을 이어나갔다. 대표적 의병장으로는 유인석(제천), 이소응(춘천) 등이 있다.

을사의병(1905~1906): 외교권이 박탈되는 을사조약(1905.11)을 원인으로 일어났다. 전직 관리 출신인 민종식(1861~1917)은 충청도 홍성 일대를 무대로 전과를 올렸으며, 흥선대원군 하야 상소와 개항 반대 상소로 유명한 최익현(1833~1906)은 전라도 태인에서 임병찬 등의 제자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가 체포되어 쓰시마 섬에서 순절하였다. 특히 경상도 일월산을 거점으로 활동한 신돌석(1878~1908)은 평민 의병장으로서 3천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일본군과 유격전을 벌여 큰 전과를 올렸다.

정미의병(1907~1908): 헤이그특사 사건으로 인한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으로 인하여 일어났고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하여 조직력과 화력이 강화되어 단순한 의병운동이 아닌 조직적인 의병전쟁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13도의 의병이 총 합류하여 각국 공사관에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통보하고 서울로 단번에 진공하는 서울진공작전(1908)을 추진하였으나 지도부의 문제(부친상을 당한 총대장 이인영의 낙향과 신돌석, 홍범도 등의 평민 출신 의병장 배제)로 실패하였다.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이인영, 허위 등이 있다

④ 최익현의 제자인 임병찬은 쓰시마 유배에서 풀려난 후 고종의 밀지를 받고 전국 곳곳의 의병장과 유생들을 모아 비밀 결사인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였다(1912). 이 단체는 복벽주의 이념에 따라 국권을 회복한 후 고종을 복위시키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전국적인 의병을 일으키려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총리대신과 조선 총독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려고 계획하던 중에 조직이 발각되어 해체되었다(1914.5).

39.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불교의 유신은 마땅히 먼저 파괴를 해야 한다. 유신이란 무엇인가? 파괴의 자손이다. …… 그러나 파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무너뜨려 없애버리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다만 구습 중에서 시대에 맞지 않은 것을 고쳐서 이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뿐이다.

- 조선 불교 유신론 -

- ① 만주에서 의민단을 조직하였다.
- ② 만세보를 발행하여 계몽 활동을 펼쳤다.
- ③ 님의 침묵 등의 문학 작품을 발표하였다.
- ④ 대성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 활동에 힘썼다.
- ⑤ 중광단에 가입하여 독립 전쟁에 참여하였다.

정답: ③

* 불교 유신론을 주장한 한용운

한용운(1879~1944): 3.1 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중 불교 대표로 참여한 독립운동가 겸 승려, 시인. 일제 시대 때 시집 <님의 침묵>을 출판하여 저항문학에 앞장섰고,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을 강화하였다. 일제의 사찰령(1911)에 맞서며 종래의 무능한 불교를 개혁하고 불교의 현실참여를 주장하였다. 주요 저서로 <조선불교유신론> 등이 있다.

① 의민단은 천주교 신도와 항일의병을 중심으로 1920년 4~5월경 북간도 연길에서 조직된 독립군단으로 방우룡을 단장으로 하였으며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대첩에 참여하였다.

② 동학의 3대 교주이며 천도교를 창시한 손병희(1861~1922)는 1906년 만세보를 발간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④ 안창호(1878~1938)는 일제 시대의 실력 양성(무실역행)을 주창한 대표적 독립 운동가로 1907년 양기탁 등과 함께 비밀 조직인 신민회를 결성을 주도하고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에 힘썼다.

⑤ 단군을 숭배하는 민족종교 대종교의 3대 교주 서일(1881~1921)은 중광단(1911)을 결성하였다. 중광단은 3·1 운동을 전후로 하여 정의단, 군정부를 거쳐 북로 군정서로 개편되어 청산리대첩(1920.10) 등 적극적인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간도참변(1920.10~12) 후에는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등 모든 제 독립군 부대를 '대한독립군단'으로 편성하여 소련 자유시로 넘어갔으나 적군에 의해 무장해제와 이를 거부하는 독립군들이 참살당하자(자유시 참변, 1921.6), "나라 땅은 유리쪽으로 부서지고 티끌모래는 바람비에 날렸도다. 날이 저물고 길이 궁한데 인간이 어디메뇨."라는 글귀를 남기고 대종교 수양법의 하나인 조식법(調息法)으로 자결하였다.

40. 다음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6일간의 혈전, ○○○ 전투

첫 전투는 10월 21일부터 벌어졌다. 우리 독립군은 이날 일본군을 공격하여 큰 전과를 올린 후, 갑산촌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독립군은 어랑촌에서 일본군을 물리치는 등 10월 26일 새벽까지 일본군과 10여 회의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두었다.

- ① 조선 의용군이 활약하였다.
- ② 한·중 연합 작전이 전개되었다.
- ③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 ④ 독립 전쟁 사상 최대 규모의 승리였다.
- ⑤ 일본군에서 탈출한 학도병이 참여하였다.

정답: ④

* 청산리 대첩(1920.10)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한 제 독립군들에 의해 봉오동 전투(1920.6)에서 패배한 일제는 훈춘 사건을 조작하여 약 2만 명의 일본군을 만주에 파견하였다. 일본군의 토벌 계획을 감지한 독립군은 화룡현과 안도현 일대로 이동하였다. 이곳에서 일본군과 추격전을 벌이던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은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 등 여러 독립군들과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전개하였다(1920. 10.).

독립군은 백운평 전투를 시작으로 6일간에 걸친 10여 차례의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청산리 전투, 최소 적 1200여명 사살한 독립군 최고의 전과).

- **백운평 전투:** 북로군정서, 협곡 지형 이용
- **완루구 전투:** 대한독립군과 연합부대, 유인 전술로 자살전을 유도
- **천수평 전투:** 북로군정서, 자고 있는 일본군 기습 섬멸
- **어랑촌 전투:** 북로군정서 + 대한독립군 및 연합 부대, 고지 선점 섬멸

- **맹개골, 만기구 전투:** 북로군정서, 소규모 전투(적 40여명 사살)
- **천보산 전투:**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및 연합독립군, 각개 기습 섬멸
- **고동하곡 전투:** 대한독립군 + 연합 독립군, 골짜기 매복(적 100여명 사살)

① 조선의용대의 일부는 중국 국민당의 과도한 통제와 소극적 항일 투쟁에 반발해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여 조선 독립 동맹 및 조선의용군을 결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1942).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군(팔로군)의 지원을 받으며 함께 태항산 전투, 호가장 전투 등에 참가하였다.

② 일제가 만주사변(1931)을 일으키고, 만주국을 수립(1932)하자 조선혁명군(양세봉)은 흥경성·영릉가 전투에서, 한국독립군(지청천) 쌍성보·사도하자 전투 등에서 일제의 만주 침략으로 항일 의식이 고조된 중국군과 연합하여 활동하였다.

③ 1935년 중국 관내에서 민족유일당으로 형성된 조선 민족 혁명당은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자 공산주의 정당과 연합하여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을 결성하고,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관내 최초 한인 부대인 조선의용대를 창설하였다(1938).

⑤ 1940년 9월 충칭으로 옮긴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미주 지역의 의연금과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 하에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한국광복군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연합군과 공동으로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참전하였다(1943). 또, 미국과 협조하여 일본군 학도병 출신(김준엽, 장준하 등)을 중심으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으나(정진군, 1945.3) 일본의 조기 항복으로 무산되었다.

41. (가) 철도의 부설권을 획득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용암포를 점령하고 강제로 조차하였다.
 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통상을 요구하였다.
 ㄷ.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토지를 약탈하였다.
 ㄹ. 삼국 간섭에 굴복하여 랴오동 반도를 청에 반환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경부선 철도 부설과 일본

일본은 본래 갖고 있던 경부선 철도 부설권 (1896) 외에 기존의 경인선(미국), 경의선(프랑스)의 철도부설권도 이양받아 확보하고, 이어 대륙 진출과 러·일 전쟁의 군사적 목적으로 한반도를 종단하는 경부선(1905), 경의선(1906)을 가설하였다.

㉠ 러시아는 1903년 3월 삼림회사 보호라는 구실 아래 군대를 파견하여 무단으로 용암포를 점령하고, 7월에는 강압으로 조차에 성공하여 러일전쟁(1904.2~1905.9)의 단서가 되었다.

㉡ 흥선 대원군 집권 시절인 1866년 8월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배에서 내려 민가를 약탈하고 관리를 잡아 가두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분노한 평양의 관민은 제너럴 셔먼 호를 불살라버렸다(제너럴 셔먼호 사건). 후일 이는 미군이 침입해 오는 신미양요(1871.6)의 원인이 되었다.

㉢ 조선 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 등을 통하여 약탈한 토지를 동양척식주식회사(1908년 설립) 등 일본인이 경영하는 토지회사나 한국으로 건너오는 일본인에게 싼 값으로 넘겨주어, 일본인들이 많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 청일전쟁(1894.7~1895.4)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과 시모노세키조약(1895.4.17)을 체결하여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러시아·독일·프랑스의 삼국 간섭(1895.4.23)으로 요동반도를 반환하며 일본의 세력은 위축되었다.

42.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였다.
- ②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 ③ 2·8 독립 선언을 발표하였다.
- ④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였다.
- ⑤ 이상설, 이동휘를 정·부통령에 선임하였다.

정답: ⑤

* 대한광복군 정부

1860년 이후 많은 동포들이 이주해 살고 있던 러시아령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1910년 6월과 8월 유인석, 이범윤 등이 중심이 되어 13도 의군과 성명회(聲鳴會)가 설립되었으나 동년 9월 대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러시아의 압력으로 해체되었다.

그러나 1911년 독립운동 기지인 신한촌과 이를 기반으로 자치조직인 권업회(勸業會)가 설립되어 독립운동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와 도서관을 설치하였으며, 기관지로 권업신문을 발간하였으나, 대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러시아의 압력으로 해체되었다.

또한 권업회를 바탕으로 군정(軍政) 정부인 대한광복군정부(1914)를 조직하여 이상설과 이동휘를 정·부통령으로 선임하고 군사 활동을 준비하였으나, 일제와의 관계 악화를 꺼린 러시아가 독립군의 무장 활동을 탄압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은 어려웠다.

이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연해주에서는 전로한족대표자회의(1917)가 설립되어 한인 신보 등을 간행하며 독립운동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다, 3·1 운동 직후 임시 정부 형태의 대한 국민 의회(1919.3)로 발전하였다. 한편, 이동휘 등에 의해 한인 사회당(1918)이 조직되어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 운동이 등장하게 되었다.

①, ②, ④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초기에는 외교활동에 힘써,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된 신한청년단 출신 김규식을 외무총장으로 임명하여 독립을 주장케 하고,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두어 이승만을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며 한국 독립 문제를 국제 여론화하는데 노력하였다.

그러나 1940년 9월 충칭으로 옮긴 뒤에는 미주 지역의 의연금과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 하에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무장투쟁을 통한 광복 투쟁을 강화하였다.

③ 1919년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제시한 민족 자결론은 약소민족들을 크게 고무시켰고 식민지의 민족 운동을 고양시켰다. 이에 국내외의 민족 운동가들도 독립을 요구하는 거족적인 시위를 구체화하는 가운데 일본에서 유학생을 중심으로 조선 청년 독립단(최팔용, 백관수 등)의 2·8 독립 선언이 선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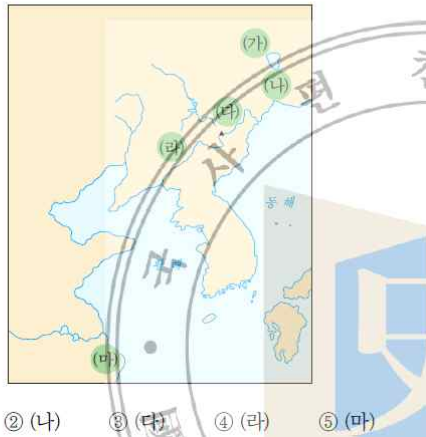
43. 밑줄 그은 '학교'가 있었던 곳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1점]

삼원보의 경학사가 설립한 학교에 청년들이 모여 들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학생들의 의지가 대단하였다. 학교에 입학이 가능한 연령은 18세 이상이었지만 더 어린 학생들이 찾아온 적도 있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과 교육 이외에도 군사 훈련을 받아야 했지만 학생들의 지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학교가 더욱 활기를 띠었던 시절은 지청천, 김창환이 합류한 이후였다. 이들은 모두 대한 제국 무관 학교 출신으로, 교관으로 활동하며 독립군 양성에 힘을 쏟았다.

- ○○○의 회고록 중에서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④

* 서간도 지역

(가) **밀산부**: 러시아와 만주의 접경 도시인 밀산에는 이상설, 이승희 등에 의해 독립운동 기지인 한흥동이 건설되었다.

(나) **연해주(신한촌)**: 1860년 이후 많은 동포들이 이주해 살고 있던 러시아령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1910년 6월과 8월 유인석, 이범윤 등이 중심이 되어 13도 의군과 성명회(聲鳴會)가 설립되었고, 1911년에는 독립운동 기지인 신한촌과 이를 기반으로 자

치조직인 권업회(勸業會)가 설립되어 독립운동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와 도서관을 설치하였으며 군정기관으로 이상설, 이동휘 등은 1914년 대한광복군 정부를 조직하여 군사활동을 준비하였으며, 러시아혁명(1917) 직후 전로한족회 중앙 총회가 결성되었는데, 이 단체는 3·1 운동 직후 임시정부 형태의 대한 국민 의회(1919.3)로 발전하였다.

(다) **북간도**: 용정촌, 명동촌 등 많은 한인 집단촌이 형성되어 이를 중심으로 애국지사들은 간민회 등 자치 단체를 만들어 동포 사회를 이끌어 가면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간민회는 민족 교육과 한인들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북간도 한인 사회의 형성과 단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 서전서숙(이상설), 명동 학교(김약연) 등 민족 학교를 세워 철저한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북간도로 거점을 옮긴 대종교에서도 중광단이란 무장 독립 단체를 만들고 사관 양성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중광단은 3·1 운동 이후 북로군정서로 발전하였다.

(라) **서간도(또는 남만주)**: 신민회 회원들이 독립군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회영, 이상룡 등이 중심이 되어 삼원보에 민족 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 강습소(후일 신흥 무관 학교)와 같은 군사 간부 양성소를 설치하였다(1911). 특히 신흥학교 졸업생들이 중심이 되어 백서농장을 건설하고 독립군을 편성, 훈련하였다. 경학사는 뒤에 부민단, 한족회로 발전하면서 독립군(서로군정서)을 조직하였다

(마) **상해**: 1918년 김규식 등에 의해 신한청년당이 창설되어 임시정부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44. 밑줄 그은 '한인 청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19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집 밖으로 나오자 거리 분위기가 술렁이며 평소와는 달랐고, 아니나 다를까 호위가 돌고 있었다. 홍커우 공원에서 중국 청년이 상하이 사변의 원흉 시라카와 대장을 즉사시키고, 여러 명을 부상시켰다는 것이었다. 얼른 신문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나온 호위에서는 폭탄을 던진 사람이 중국인이 아니고 한인 청년이라고 고쳐 보도되었다.

- ① 대한 독립군에 참여하였다.
- ② 한인 애국단에서 활동하였다.
- ③ 영릉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 ④ 북만주에서 신민부를 조직하였다.
- ⑤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였다.

정답: ②

* 윤봉길(1908~1932) 의사(義士)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장 어려울 때인 1920년대 후반 백범 김구는 침체된 분위기를 깨고자 한민애국단(1931)을 조직하였다.

한민애국단의 단원인 이봉창은 1932년 1월에 일본 도쿄에서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일본 국왕을 처단하기 위해 국왕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한편, 4월에는 같은 한민애국단원인 윤봉길은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 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져 점령군 사령관 시라카와 대장 등을 살상케 하는 용장을 하였다.

특히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당시 일본의 침략을 경계하고 있던 중국인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으며, 중국정부와 중국인들이 한국인의 항일 독립 투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① 1919년 북간도 왕청현에 근거를 두고 창설되어 홍범도가 이끌던 대한독립군은 1920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의 주역으로 활약하다, 간도참변 이후 대한독립군단에 합류하였으며 소련령으로 이동한 후 자유시 참변(1921.6)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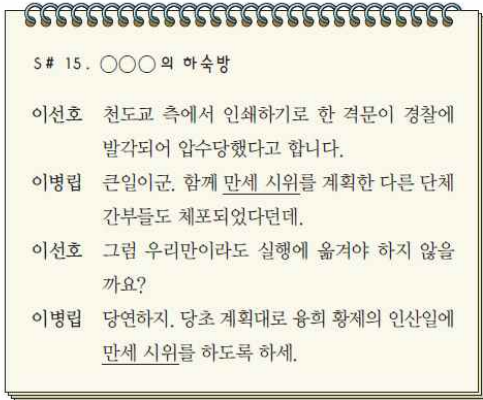
③ 1930년대 초 남만주 지역에서 조선 혁명군을 이끈 양세봉(1896~1934)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흥경성, 영릉가 전투의 대일 승리를 이끌어냈다.

④ 자유시 참변 이후 시베리아에서 만주로 돌아온 독립군 세력들은 김좌진(1889~1930), 조성환을 주축으로 신민부(1925)를 조직하고 동포 사회를 관할하였다.

⑤ 3·1 운동 이후 김원봉(1898~1958) 등은 일제의 지배에 맞서 싸울 강력한 조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만주 지린(길림)에서 의열단을 결성하였다(1919). 의열단은 조선 총독부 고관, 매국노, 친일파 등의 처단과 조선 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각 경찰서 등 식민 통치 기관의 파괴를 목표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25년부터 의열단은 방향 전환을 모색하였다. 암살이나 파괴만으로는 민족 해방 운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여겨, 대원을 황푸군관 학교에 입교시키고, 조선혁명학교를 설립하여 간부를 양성하였다(1932).

45. 밑줄 그은 '만세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자치론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 ②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 ③ 광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④ 한국과 일본 학생의 충돌로 시작되었다.
- ⑤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⑤

* 6.10 만세운동(1926)

사회주의자(조선 공산당), 천도교, 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은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만세 운동을 계획하였다(1926).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한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으나 학생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순종의 국장일인 6월 10일, 학생들은 일제 경찰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장례 행렬을 따라가며 서울 시내 곳곳에서 만세 시위를 벌였고, 많은 시민들이 합세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전국 곳곳의 학생들도 동맹 휴학 투쟁을 벌여 호응하였다.

이에 대해 일제는 1925년에 제정된 치안유지법(천황 통치 체제 및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는 법률)을 통해 이 운동을 탄압하였다. 특히, 6·10 만세투쟁으로 인한 화요파 조선공산당에 대한 검거(2차 조선공산당사건)는 화요파에 대한 치명적 타격을

주었다.

6·10 만세운동은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되지는 못했지만, 일제타도를 위한 구체적 실천 노선을 제시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당시 격문에는 '일체의 납세를 거부하라!', '일본인 공장의 직공은 총파업하라!', '일본인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지 마라!' 등 민중이 실천해야 할 경제투쟁의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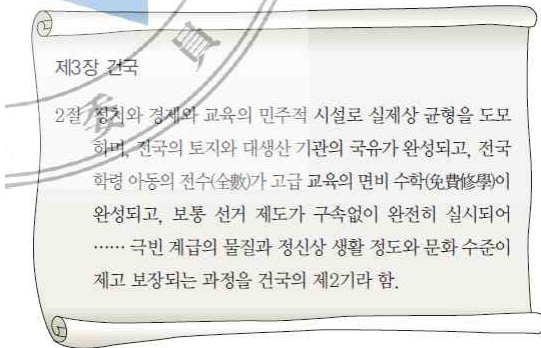
또한, 운동의 준비 과정에서 조선 공산당 등 사회주의 세력과 천도교 등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함으로써 민족 유일당을 결성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① 1920년대 들어 일제의 유화적인 문화통치 배경속에서 '先실력양성 後독립'의 민족개조론(1922)을 주장하던 이광수가 '민족적 경륜'(1923) 발표 하자 이후 자치론(타협적 민족주의)이 확산되었다.

② 3·1 운동은 전 민족이 참여한 대규모의 독립 운동으로서, 우리 민족의 독립 운동을 한 차원 높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또,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국내외에 민족의 주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국외 항일무장투쟁, 사회주의와 여성운동 등 다방면의 민족 운동이 전개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약소 민족의 독립 운동(중국의 5.4 운동, 인도의 반영 운동 등)에 큰 자극이 되었다.

③, ④ 1929년 11월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사건을 계기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3·1 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46. 다음 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보 기>—

- ㄱ. 신채호에 의해 작성되었다.
- ㄴ.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기초하였다.
- ㄷ. 의열단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였다.
- ㄹ.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임정의 건국강령(1943.11)

1930년 1월 조소앙, 이동녕, 안창호, 김구 (1935.11 한국 국민당으로 이탈) 등 순수한 민족주의자 중심의 정당인 한국독립당(상해)이 창설되었다. 이 당은 정강으로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조소앙이 1935년 7월 단일 연합 전선을 위해 김원봉이 주도한 조선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였다가, 동년 9월에 김원봉의 노선과 임시정부에 대한 태도 등을 문제삼아 탈퇴하고 한국독립당을 재건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임시정부는 충칭에 정착 (1940.9) 직전 김구 주도하에 3당(한국 국민당-김구, 조선혁명당-지청천, 한국독립당-조소앙) 합당하여 통합 한국독립당이 창당되었다.

임시정부의 여당인 된 한국독립당은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통해 건국 강령을 제정.발표하였다. 건국 강령은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보장하는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 정신을 표방하였으며 광복을 앞두고 분열된 민족 운동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의지도 담고 있었다.

㉠, ㉡ 신채호는 의열단의 행동 강령과 투쟁 목표를 문서로 만들어 달라는 김원봉의 요청에 따라 1923년 1월에 '조선혁명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글의 앞에서는 일제와 타협하는 자치 운동과 문화 운동에 대해 통렬히 비판하였으며, 외교론(이승만), 준비론(안창호) 등의 독립 운동 노선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그리고 독립을 이루는 길은 오직 민중 직접 혁명밖에 없으며, 의열단의 폭력 투쟁은 민중을 일깨워 직접 혁명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구적 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

47. 다음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비례 대표제가 적용되었다.
- ② 6·25 전쟁 중에 진행되었다.
- ③ 헌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었다.
- ④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였다.
- ⑤ 통일 주체 국민 회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정답: ④

* 5.10 총선 (1948)

제헌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5·10 총선거는 대다수 국민의 참여와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아래 실시되었다. 반면에 김구와 김규식 등 남북 협상파와 일부 중도 세력 및 공산주의자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주도 일부 지역(4·3 무력항쟁으로 2개 선거구 불능)을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투표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5·10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였다. 만 21세 이상의 유권자들은 보통·직접·평등·비밀의 원칙에 따라 신성한 표를 행사하였다. 이 선거를 통해 임기 2년의 제헌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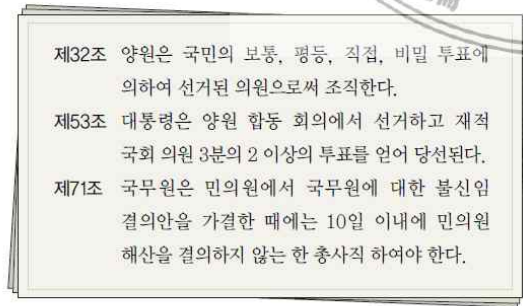
① 1963년 실시된 제6대 총선거에서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었다. 전체 의석의 1/4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했고, 지역구 선거에서의 정당간 득표비율을 배정기준으로 삼았다.

② 6.25 전쟁(1950.6~1953.7) 중에 실시된 총선(국회의원) 선거는 없고, 2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 직선제로 실시되었다(1952).

③ 5.10 총선은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실시된 최초의 선거로 개정이 나올 수 없다.

⑤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1972.10)에 따라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라는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고(간선제), 임기 6년, 연임제한 없음이었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1/3을 추천하게 되어 3권 분립의 틀이 깨지게 되었다.

48.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의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내각 책임제로 운영되었다.
- ② 베트남 파병을 결정하였다.
- ③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④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다.
- ⑤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다.

정답: ①

* 의원 내각제(내각 책임제)가 실시된 장면 정권(1960.8~1961.5)

4.19 시민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후 구성된 허정 과도 정부는 부정 선거를 계획한 정부 각료와 자유당 간부를 구속하였다. 국회는 6월 15일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7월 29일, 민의원과 참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민주당 후보가 대부분 당선되었다. 이후 구성된 국회에서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장면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여 장면 내각이 성립되었다.

장면 내각은 출범 직후 시정 방침을 발표하고 개혁에 나섰다. 그러나 다양한 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으며, 약속했던 부정 선거 책임자와 부정 축재자 처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한편, 이승만의 반공 정책으로 억압되었던 평화 통일 운동이 분출하였다. 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남 전기, 이북 쌀'과 같은 구호를 내세우며 남북 학생 회담을 주장하였다. 혁신계 정당과 단체들도 남북 정당과 사회 단체의 정치 협상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유엔이 제안한 남북 총선거를 통한 평화 통일론을 수용하면서도,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에는 반대하였다.

또한 장면 내각은 공무원 공개 채용 제도와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조치 등을 단행하였고, 군비 축소를 통한 경제 개발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집권당인 민주당은 대통령(구파)과 총리(신파)를 중심으로 분열·대립하였다.

②, ③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할 때에 한·일 협정(1965) 체결의 대가로 들어온 외화와 베트남 파병(1965~1973)에 따른 베트남 특수는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의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로 말미암아 농업은 희생을 감수하였다. 산업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저임금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저곡가 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농촌의 생활은 어려워졌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④ 김영삼 정권(1993~1998)은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다(1993).

⑤ 김대중 정권(1998~2003)과 노무현 정권기(2003~2008)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1차:2000.6.13., 2차:2007.10.4.)

49. 밑줄 그은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 ①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 ② 프로 야구가 출범되었다.
- ③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 ④ 100억불 수출이 달성되었다.
- ⑤ 정부 고속 도로가 개통되었다.

정답: ③

*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한 노태우 정권(1988~1993)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물인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따라 첫 집권한 노태우 정부는 88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 및 소련(1990), 중국(1992)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북방 정책을 추진하였고, 유엔에 남북한이 함께 가입(1991.8)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1991년 12월에 남북한이 상호 상대방 정권의 실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등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는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채 통치 기간 중에 발생한 부정과 비리로 국민적 지지를 제대로 얻지 못하였다.

① 노무현 정권(2003.2~2008.2) 때인 2005년 3월 현재의 위헌 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2008년 1월일부터 호적 대신 가족관계 등록부가 만들어져 가정 내 여성의 지위는 이전보다 높아졌다.

② 전두환 정권(1980.9~1988.2) 때인 1982년 3월 프로 야구가 출범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④ 박정희 정권기(1963~1979)인 1970년대 초 국제 유가 폭등으로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수출 증대(1977년 수출 100억불 달성)와 건설업의 중동 진출로 오일 달러를 획득하여 극복하였다.

⑤ 박정희 정권기인 1960년대의 제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71)에서는 경공업과 수입 대체 산업, 국가 기간산업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이 기간에 울산 공업 단지와 마산 수출 자유 지역이 조성되고 포항 종합 제철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또 소양강댐과 경부 고속국도(1968~1970)가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50. 밑줄 그은 '이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몽골과의 전쟁 때 임시 수도였다.
- ② 영국군이 점령하였다가 철수하였다.
- ③ 프랑스가 병인박해를 구실로 침입하였다.
- ④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불법 편입하였다.
- ⑤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위해 조차를 요구하였다.

정답: ④

* 안용복과 독도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독도는 울릉도에 딸린 섬으로서, 일찍부터 우리나라의 영토로 이어져 내려왔다.

삼국사기 기록의 신라 지증왕 13년(512)에 이사부를 통하여 우산국(울릉도)을 정벌한 사실과, 고려사 지리지(동계 울진현조), 세종 실록지리지(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조 기록), (신증)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에 우산도(독도)를 울릉도 안쪽에 표기) 등의 문헌 등을 통해서 우리 영토임을 분명하였으나, 조선 초기에 유민을 막기 위해 울릉도민들을 본토에 옮겨 살게 하여(공도 정책) 한때 정부의 관리가 소홀하였다. 그러나 우리 어민들은 고기잡이를 하는 거점으로 줄곧 활용해 왔다.

특히, 조선 숙종 때에는 동래에 살던 안용복이 이 곳을 왕래하는 일본 어부들을 쫓아 내고, 일본에 건너가서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확인시킨 일도 있었다(1696).

그 후에도 일본 어민의 침범이 계속되자, 이에 정부는 일본 측에 항의하고 육지 주민을 울릉도에 이주시키고 관리를 파견하였다(1884). 특히 1899년 울릉도의 산림 채벌권을 가진 러시아가 대한제국 정부에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울릉도의 삼림을 벌채해 가고 있으니 이를 금지해 달라고 외교 문서로 강력하게 항의하자, 1900년 내무관리 우용정을 울릉도 시찰위원으로 임명하여 일본 측과 제3국 외국인을 포함한 조사단을 파견하여 일본인의 불법 자행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이후 대한제국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행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제의 개정 및 격상을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대한제국 정부 칙령(41호)으로 두 섬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가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石島)도 관할하게 하면서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다(1900.10.25).

그러나 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적으로(대한제국에 통보치 않음) 자국의 영토(시마네 현)에 편입시켰으나(1905), 해방 후 되찾았고 1952년부터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국 영토임을 부르짖으며 끈질기게 분쟁지역으로 몰아가고 있다.

- ① 강화 천도 시기(1232~1270)
- ② 영국의 거문도 점령(1885~1887)
- ③ 병인양요의 주 격전지 강화도(1866)
- ⑤ 러시아의 부산 절영도 조차 요구(1898.1)